

碩士學位論文

화장과 화장품의 미용학적 상관성 연구

-

2005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분장예술專攻

鄭 淑 賢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柳銀珠

화장과 화장품의 미용학적 상관성 연구

A Study of the Aesthetic Correlation between
Make-up and Cosmetics

2004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분장예술專攻

鄭 淑 賢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柳銀珠

화장과 화장품의 미용학적 상관성 연구

A Study of the Aesthetic Correlation between
Make-up and Cosmetics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분장예술專攻

鄭 淑 賢

鄭淑賢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4年 12月

審査委員長_____ ⑩

審査委員_____ ⑩

審査委員_____ ⑩

화장은 얼굴을 중심으로 색과 향을 부여하고 잘 조화시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 가치를 추구해 왔고 의복과 같이 항상 인간의 부속물로 함께 이루어져 왔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해온 화장은 피부표면에 직접 행해진다. 는 제한으로 다른 치장 요소에 비해 그 표현 방법 및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20세기 전까지는 화장품의 원료구입, 제조방법 등의 한계로 크게 보편화되지 못하였고 역사적으로 화장이 극도로 지나치게 사용되었던 시기에는 남녀의 구분 없이 귀족 혹은 특수한 신분계급의 전유물로서 사치와 신분의 차가 반영된 문화였다.

20세기에 들어와 현대 산업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대중이 출현하면서 그들 각자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 미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화의 진행으로 화장품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화장은 일반에게까지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원료의 활용 가능성에 따른 기술적인 발달과 그에 따른 전형적인 화장 양식의 발전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 화장 기술의 발전은 화장품의 발명과 개선에 좌우된다. 특히 화장 문화는 사람들의 특정한 생활 방식으로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행동과 그 행동의 산물 즉 물질적 사물인 화장품에 의해서 표현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적 사물의 한 범주인 화장품과 화장은 그들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현대의 화장 문화는 무조건적 외래모방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의식에 대한 독특한 이론적 배경 위에서 시대적 풍조가 단일화되는 것도 아닌, 개개인이 가지는 개성 있는 미의식의 해석 위에서 자연스러운 조화들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화장품 역시도 기능화 되고 과학화된 토탈 시스템으로서 작용을 하도록 제공되고 있으며 인체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배경으로 생체공학적인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장을 한다는 것과 화장품을 바른다는 것을 얼굴 각 부위별로 구분하여 보다 학문적으로 해석하였으며 화장과 화장품의 사회성을 기반으로 상호관계를 역사적 고찰을 통해 각 시대별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서 보다 폭넓은 미의식을 수용하고, 화장과 화장품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 과정에는 그 시대의 어떤 특정한 도구의 발달로 화장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특정 화장을 하기 위해 화장품을 개발, 연구하기도 하면서 인류의 아름다움에 대한 꾸밈은 발전해 왔다. 이는 인류의 화장문화에서 우리가 화장의 부속물로만 여겨졌던 화장품이 화장문화와 공생하며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해온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단지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화장품과 관련지어 연구, 제시함으로써 미용분야에 화장과 화장품에 대한인식을 통합하고,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화장과 화장품의 이론적 배경	3
1. 화장 및 화장품의 개념 및 기원	3
2. 화장과 관련된 얼굴 각 부위별 분석	5
3. 화장의 사회성	11
III. 색조화장과 색조화장품의 시대적 변천	13
1. 색조 화장의 시대적 특징	13
2. 색조 화장품의 시대적 특징	33
IV. 화장과 화장품의 미용학적 상관성	59
1. 패턴지를 이용한 화장표현	59
2. 시대와 관련된 색조 화장품 사용의 실례	60
V. 결론	75
참고문헌	80
ABSTRACT	83

그림 목차

〈그림 1〉 얼굴 안면 근육	9
〈그림 2〉 미개인의 치장	16
〈그림 3〉 크노소스궁전 벽화에 그려진 여성상	16
〈그림 4〉 고대이집트의 화장	16
〈그림 5〉 Goddess Isis Tomb of Horemheb(13301305.BC).....	16
〈그림 6〉 Queen Nefertiti(12791212.BC).....	16
〈그림 7〉 오우커(Ocher)	16
〈그림 8〉 고대아라비아 여인	17
〈그림 9〉 13세기의 레오치오 란디(Neroccio De' Landi)	18
〈그림 10〉 중세의 화장(Eleonora Di Toledo)	18
〈그림 11〉 중세의 화장(폴란드의 여인)	18
〈그림 12〉 중세여인들의 화장	19
〈그림 13〉 벨라도나(belladonna)	24
〈그림 14〉 엘리자베스 1세	24
〈그림 15〉 할스의 여인의 초상	24
〈그림 16〉 프랑스 루이 왕조 궁정 여성의 초상화	24
〈그림 17〉 Portrait of Daughter of Louis XV	24
〈그림 18〉 Henrietta of France as Flora(1742)	25
〈그림 19〉 Portrait of Susanna Fourment(Le chapeau de paille)	25
〈그림 20〉 패치, 플럼퍼	25
〈그림 21〉 나폴레옹 3세 부인 유제니(Eugénie)	25
〈그림 22〉 빅토리아 여왕 (Alexandrina Victoria)	25

〈그림 23〉 아라비아 나이트의 키스메트(Kiamet)	31
〈그림 24〉 클라라 보우(1920년대)	31
〈그림 25〉 태양에 그을린 피부(1920년대)	31
〈그림 26〉 그레타 가르보(1930년대)	31
〈그림 27〉 그레이스 켈리(1940년대)	31
〈그림 28〉 오드리 헵번(1950년대)	31
〈그림 29〉 히피 문화(1960년대)	32
〈그림 30〉 Twiggy(1960년대)	32
〈그림 31〉 브룩 쉘즈(1970년대)	32
〈그림 32〉 핑크 문화(1970년대 말)	32
〈그림 33〉 존 콜린(1980년대 복고풍)	32
〈그림 34〉 Dior사의 모델(1990년대 자연미)	32
〈그림 35〉 맬리카이트(malachite)	37
〈그림 36〉 갈리너(galena)	37
〈그림 37〉 안티모니(antimony)	37
〈그림 38〉 코울(Koahl)	37
〈그림 39〉 방연광(PbS)	37
〈그림 40〉 이산화망간(MnO_2)	37
37	
〈그림 41〉 석고($\text{CaSO}_4 \cdot 2\text{H}_2\text{O}$)	37
37	
〈그림 42〉 석회석(CaCO_3)	37
37	
〈그림 43〉 연백	37

<그림 44> 코치닐(Cochineal)	38
<그림 45> 카민(Carmine)	38
<그림 46> 고대 이집트의 화장품 도구 상자	38
<그림 47> 코울 쌍 튜브	38
<그림 48> 코울 아이새도우 튜브	38
<그림 49> 고대 이집트의 크림 눈 화장병	38
<그림 50> 라드(Lard)	40
<그림 51> 수은(Hg, mercury)	40
<그림 52> 장뇌(camphor)	40
<그림 53> 백분(Face Powder)	40
<그림 54> 연백	40
<그림 55> 중세 시대 화장품 도구들	40
<그림 56> 메디치 카세리나	44
<그림 57> 진사(Cinnabar)	44
<그림 58> 에스티로더의 진사를 원료로 한 제품(현대)	44
<그림 59> 야들리(Yardley)사의 제품들(1970)	44
<그림 60> 근대 화장품 도구상자	44
<그림 61> 근대 19세기 향수 제품	44
<그림 62> 산화아연(Zinc Oxide)을 원료로 한 제품(현대).....	55
<그림 63> 카카오(Cacao)	55
<그림 64> 냉이(Wasabi)	55
<그림 65> 황연 소금(Sulfosalt)	55
<그림 66> 마그네슘(Mg)	55
<그림 67> 규산염(silicate mineral)	55

〈그림 68〉 입술용 제품들(프랑스, 1900)	55
〈그림 69〉 눈화장용 연필과 손톱용 화장품(프랑스, 1900)	55
〈그림 70〉 맥스 팩터(Max Factor)의 화장품1	56
〈그림 71〉 맥스 팩터(Max Factor)의 화장품2	56
〈그림 72〉 셰이크(The Sheik)	56
〈그림 73〉 스키파렐리(Schiaparelli)	56
〈그림 74〉 스키파렐리(Schiaparelli)의 향수	56
〈그림 75〉 코손(Corson)의 메이크업 저서1	56
〈그림 76〉 코손(Corson)의 메이크업 저서2	56
〈그림 77〉 디아더민(Diadermine)사의 주름방지용 제품들	57
〈그림 78〉 매리 쿼트(Mary Quant)의 화장품(1970)	57
〈그림 79〉 코울(Kohl)을 이용한 현대의 아이펜슬	57
〈그림 80〉 2차 세계 대전중의 야들리사의 화장분	57
〈그림 81〉 일본 시세이도사의 화장품(1931)	57
〈그림 82〉 현대 화장품1	58
〈그림 83〉 현대 화장품2	58
〈그림 84〉 현대 화장품3	58
〈그림 85〉 현대 화장품4	58
〈그림 86〉	65
〈그림 87〉	66
〈그림 88〉	68
〈그림 89〉	69
〈그림 90〉	70
〈그림 91〉	71

〈그림 92〉	73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대는 다양한 형식과 재료들로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내려는 자기표현의 시대라고 말한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신분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모든 행위들 역시도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하나의 확장된 수단이며,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줌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화장은 가장 기초적인 자기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장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여성의 삶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띠고 있다. 즉 화장은 역사적인 변화와 그 시대의 사회적인 요소, 여성의 지위 변화에 따라서 유행과 그 의미를 달리 하여 왔으며,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다.¹⁾ 현대 화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단순히 본능적 치장의 행위 보다 복잡한 인간의 미적 가치와 관련된 중요한 생활문화가 되었다.

따라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화장 문화는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였고 화장 문화의 전개에 있어 필수적요소인 화장품은 산업적으로도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미(美)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화장은 시대를 반영하면서 발전해 왔다. 인력으로 어찌 하지 못했던 불가항력 앞에서 재해를 막고자 했던 종교적, 장식적 의미로 신체에 색을 칠했었던 고대의 개념이 현대에는 약점의 수정·보완이라

1) www.cyberbeauty.co.kr

는 소극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자기를 표현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정체성의 시각적 표현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동·서양의 화장 문화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기존 논문이나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화장과 화장품의 사회성을 인식한 후 고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 화장의 특색과 이에 따른 화장품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고찰함과 동시에 기존 연구된 자료들이 화장 문화에 대한 시대적 사회성을 다루었다면 더 나아가 화장 문화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관련지어 연구함으로써 기존 연구된 자료를 보완, 재정립하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각 시대별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연관되어 화장 문화와 그에 따른 화장품에 반영된 정신적 기반과 미의식을 규명하고 화장문화를 화장품과 관련지어 재해석함으로써 화장과 화장품의 미용분야에 통합적이고 통시적인 맥락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먼저 화장의 개념과 기원을 다루고, 화장과 화장품이 단순한 자기표현의 도구의 개념이 아닌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천되고 발전한 화장의 사회성, 또 화장을 우리 인간의 얼굴구조와 관련지어 해석한, 화장과 관련된 얼굴 각 부위별 분석을 2장에서 같이 다루었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화장의 시대적 특징과 화장품의 시대적 특징을 3장에서 다루었다. 시간적인 범위는 고대시대부터 20세기까지 설정하였으며 내용적인 범위는 각 시대적 배경 속에서의 화장 문화의 특색과 화장품의 변천 및 발전 과정으로 다루었다. 이에 4장에서는 미용학의 사회적 측면에서 화장과 화장품의 상관성을

제시 하였다. 그 시대의 사회적인 환경이나 인식, 관습으로 인해 화장과 그 도구, 즉 화장품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화장과 화장품의 발전과정을 시대적 고찰을 통해 다루었다. 패턴지를 이용해 색조화장품의 선택과 그에 따른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화장 문화에서 화장품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을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 자료를 비롯한 각종 문헌 자료와 사료를 분석하고 재정리,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장 문화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관련지어 인터넷 자료를 통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II. 화장과 화장품의 이론적 배경

1. 화장 및 화장품의 개념 및 기원

현재 보편적으로 쓰이는 화장(化粧)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 또는 ‘분, 연지 등을 바르고 매만져 얼굴을 곱게 꾸미는 행위’다. 또 다른 사전에서는 ‘화장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비롯되어 온 것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육체의 일부를 표면적으로 변형하는 인류풍습의 하나이며, 좁은 의미로 보면 재료에 관계없이 직접 사람을 미화하는 장식수단의 하나이다.²⁾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장이란 타고난 자신의 외모를 수정·보완해서 아름다워 보이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개념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그 시대, 그 문화권에 부합되도록 여러 가지 화장품과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적 또는 기교적으로 꾸미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화장은 ‘전체적 조화를 중시하고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토탈패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얼굴만을 구성하는 화장의 기술적인 면에서 벗어나 의상, 헤어스타일, 악세서리, 화장에 이르는 코디네이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화장은 메이크업(make up),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마키야주(maquillage)등에 해당하며 메이크업(make up)이라고 하는 말이 대중화된 것은 미국의 할리우드 전성기로서 현대 화장을 대변하는 언어로서 자리를 잡았다. 서구에서 메이크업(make up)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래슈(Richard Crashou)에 의해서였는데 이보다 앞서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Shake speare)의 희곡에서 ‘painting’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질은 화장을 가리켰으

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3, p.23

며 1617세기를 통하여 연백(鉛白)을 원료로 만든 분을 ‘paint’ 라고 불렀고 후에 백납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어 만든 다채로운 안료로 얼굴에 색칠하는 것을 ‘painting’ 이라고 하였다. 프랑스어인 ‘maquillage’ 는 원래 분장을 의미하는 연극 용어였으며 투알레트(toilette)는 1540년경 영국에 전해져 ‘toilet’ 로 변한 말로서 화장을 포함한 치장 전반을 가리킨다.³⁾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화장품에 해당하는 어휘를 살펴보면 장식품(裝飾品), 장구(粧具) 또는 화장품과 화장용구(거울, 족집게, 경대, 머릿보등) 일체를 총칭하여 가리키는 말로 장렴(粧奩)이 있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화장을 가리키는 지분과 분대를 비롯한 우리 고유의 어휘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라 듣기 어렵게 되었다. 언제부터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어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고 그 시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 20세기 어느 시점부터 화장품이라는 말로 완전히 대체 되었다. 최근에는 향장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화장품과 향료제품을 총칭한 것이다. 화장품은 시각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향료는 후각적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품과 향료제품을 따로 말할 때나 총칭할 때에도 구분하지 않고 흔히 화장품이라고 일컫는다.

화장품은 영어로 코스메틱(cosmetic), 프랑스어로는 코스메티크(cosmetique), 독일어로는 코즈메틱(kosmetic)이라고 한다. 이 단어들의 어원은 ‘잘 정리한다, 잘 감싼다’ 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코스메티코스(cosmeticos)에 두고 있으며 무질서, 혼돈을 의미하는 ‘카오스(chaos)의 반대 개념인 ’ 코스모스(cosmos: 우주, 질서있는 체계, 조화) ‘에서 유래하였다. 다른 설로는 로마시대에 화장품의 생산을 위해 ’ 오나트릭(Onatrix)’이라는 나이 많은 여자노예가 ‘코즈메타(cosmetae)’라는 노예집단을 거느리고 화장품을 생산하였는데 이 노예 집단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화장품을 ’ 코스메틱(cosmetic)’이라 칭하게 되었다.⁴⁾고 보기도 한다.

3) 조명자, “한국 화장문화 사적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7

4) 青木英夫, “西洋化粧文化史”, 源流社, 1976, p.37

화장의 역사는 서양미술사에 나오는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회화의 역사보다는 길다. 원시인류는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꽃, 동물 문양 등을 회화, 조각, 문신 등의 형태로 피부에 남겼는데, 이것이 오늘날 화장의 시초였다고 추정한다. 인간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화장을 시작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답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화장이 시작된 동기는 신분, 계급, 종족, 남녀의 성별을 구별하기 위한 치장이 미화수단으로 발전했다는 장식설(裝飾說), 인간이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신의 육체적 매력을 사용하여 종족 보존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양식이었다는 이성유인설(異性誘引說),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떤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위장·은폐를 하였는데 이것이 미화수단으로 발전했다는 보호설(保護說), 그리고 인간은 자연과 재앙 앞에서 한없이 미약한 존재였기에 벗어나고 싶어했다. 따라서 신령의 힘이나 정령의 힘을 자신의 신체에 싣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면을 사용하거나 그 나뭇대로의 분장하는 방법을 익혀 자신을 표현하는 주술(呪術) 및 종교설(宗教說)이 있다.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식욕이나 성욕과 더불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는 견해로 인류는 나뭇대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미에 대한 가치관이 태고적부터 있었고 그것이 시대적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는 인간의 본능설(本能說)등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화장의 기원을 어느 한 가지 설로서 설명하기 어려우며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따라서 그 동기를 달리 했을 것으로 본다.⁵⁾

2. 화장과 관련된 얼굴 각 부위별 분석

5) www.cyberbeauty.co.kr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과 문화의 고유한 성격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 최상의 적응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란 무의식중에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가꾸어지기도 한다. 시각적으로 눈, 코, 입, 귀는 얼굴이라는 구조물의 장식품 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큰 이목구비를 선호하는 성향은 미적 감각이 장식적인 미를 중시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화장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공간적 표현의 조형예술이다. 학문과 예술의 근본적인 목적이 휴머니즘이듯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오묘한 곳은 얼굴이다. 화장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가치추구의 수단이나 아름답다는 정체가 우리 몸 각 부분의 상징적 의미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화장술만이 긴 생명력을 갖는다.

아름다움이란 “진·선과 더불어 사람이 추구해 온 정신적 가치의 하나”로서 아름다움을 가치로 정해 놓고 추구하는 생물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행동 중 예술적 행동이 가장 독특한 것으로서 또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⁶⁾ 아름다움은 쾌감을 수반하는 감정의 하나로서 우리 눈에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 아름다움에 대한 정신적 가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미적 감정은 우리 뇌 속의 생화학적 반응의 결과로서 시각·청각·후각 등의 여러 자극이 뇌 속에서 엔드로핀, 도파민 등 쾌감을 일으키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자극한 결과로 일어난다.

결국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보는 이의 눈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미(美)는 시각 뇌인 우뇌반구의 판단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또한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이는 인간적인 본능이다. 즉 동물성과의 비교에 따른 인간능력을 발견하고 이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온 것이 인간의 역사이다. 자연히 이 평균형 얼굴에 인간적 특징이 부가되어 안면미관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6) Francis Sparshott, *The Theory of The Arts*,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82, p.110.

보통 사람의 이목구비의 형태차이는 대개 2mm 안팎에 불과하다. 미녀와 추녀의 차이라고 해도 5mm를 넘지 않으나 우리 눈이 예민하여 그렇게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이다. 이 근소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미·추도 구분할 수 없으니 따라서 미·추도 없는 셈이다. 이처럼 미·추는 보는 우리 눈에 달려 있지 실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몸의 다른 어떤 부분도 눈만큼 내면을 잘 나타내지는 못한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은 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감춤으로서 눈이 바로 얼굴인 셈이다. 플리니우스(Plinius, 로마의 작가·행정관. 123-97)의 말처럼 ‘영혼의 창’인 눈은 얼굴의 심리학적 중심이며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면 눈을 쳐다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눈은 얼굴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친밀한 부분으로 화가 나면 마치 생각만으로도 대상을 불태워 버리겠다는 듯이 뜨겁게 타오른다. 반면에 수치심을 느끼면 마음을 숨기려고 눈길을 피한다.

캘리포니아 대학(샌타크루즈 소재)의 도미니크 마사로 교수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⁷⁾라고 말한다. 눈에도 청각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개의 눈은 각기 다른 각도로 물체를 본다. 따라서 양쪽의 망막에는 상이 조금 다르게 맺히므로 뇌는 이 불일치를 평가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시차(視差)라고 불리는 트릭으로서 보이는 눈은 전체 안구 크기의 6분의 1정도이다. 눈의 매혹적인 효능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흰자위, 홍채, 동공인 세 부분으로서 흰자위는 공막의 일부이면서 안구 전체를 감싸는 덮개로 홍채와 동공 위에서는 투명하다. 흰자위는 같은 홍채 및 동공과 대조를 이루어 눈의 움직임을 돋보이게 한다. 만약 공막이 홍채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아내지 못한다. 시선의 방향을 아는 것은 매우

7) 대니얼 맥닐, “THE FACE(얼굴)”, 언정희 역, 서울 : 사이언스북스, 2004, p.311.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의 뇌에는 시선 탐지 풍향기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회로가 있다. 이 시선 탐지 풍향기는 상대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 과학자는 이러한 ‘주목 구조’가 우리에게 위계질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 주어 사회적 결합력을 높여 준다고 말했다. 즉 사회를 조직화한다는 말이다. 눈썹은 분노, 놀람, 즐거움, 두려움, 무력함, 주목, 기타 우리가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 눈썹은 심리 상태를 알려 주는 작고 활발한 신호기 같은 것은 실재없이 눈썹을 통해 사용한다. 그러므로 사실 눈썹이 흐리고 짧은 것은 단명하며 결혼운도 나쁘고 남편과도 좋지 않은 상이다. 그러므로 눈썹이 흐린 사람은 눈썹의 결을 따라 분명하게 그리고 브러쉬로 약간 부풀어 오른 듯하게 그리되 눈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그린다. 속눈썹은 눈에 있어서 관능적인 우아함을 더해 준다.⁸⁾ 에마 보바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빛나는 갈색 눈은 속눈썹 때문에 검게 보인다. 별이 폭발하는 것처럼 눈 주위로 퍼져 나가는 속눈썹의 패턴은 사람들의 관심을 눈으로 끌어들인다.⁹⁾

눈 깜박임은 평균적으로 3분의 1초 지속된다. 우리가 앞을 못 보는 동안 눈꺼풀은 6분의 1초 동안 동공을 가린다. 깜박임 없이 15초에서 45초가 지나면 눈이 마르면서 안구를 자극하기 시작한다.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섬세한 떨림이나 진동 정도로 변화의 규모가 미미하다.

뇌는 정상적인 깜박임에 대한 인식을 삭제하고 세계를 하나의 영상으로 이어 붙이기 때문에 깜박임은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발생 과정에서 맨 처음 얼굴에서 모양을 갖추는 기관인 입은 얼굴에서 진화적으로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서 원시적이고 근원적이다. 입은 수정 직후 낭배기(gastrula

8) 정현우, “알기쉽게 볼수있는 인상학”, 자유시대사, 1994, p.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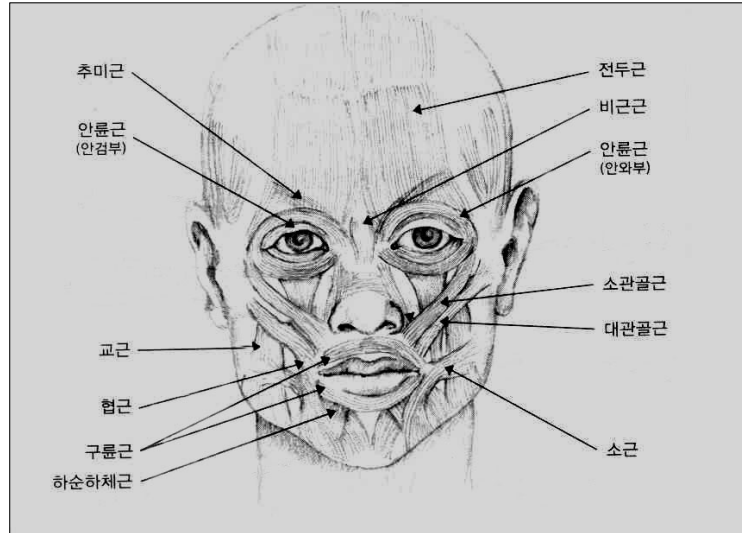
9) 김소희, “안면분석학에 의한 효과적인 이미지 메이킹업”,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stage) 단계에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둥근 공 모양의 포배 표면이 조그맣게 함몰해 들어가는데, 이 함몰 부분이 나중에 근육과 내부 기관으로 발달할 채강 속으로 점점 깊이 밀고 들어가면서 소화관을 형성한다. 소화관이 배(胚)의 반대쪽 끝에 도달하면 표면 세포층을 뚫고 입이 만들어짐으로서 이 구멍은 몸속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가 된다. 입은 얼굴에서 가장 변화가 자유로운 곳이다. 다른 짐승과 비교할 때 입 부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어 납작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 얼굴의 현저한 특징이다. 성별 구분에 도움을 주는 얼굴 기관으로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입이 더 작고, 윗입술은 상대적으로 더 짧다. <그림1>과 같이 대관골근은 입이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고, 안륜근은 뺨을 들어 올려 눈을 향해 피부를 눌러서 기쁨으로 눈이 가늘어지게 만든다.¹⁰⁾ 모든 미소가 즐거움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미소는 절대 다른 표정으로 오인할 수 없듯이 입은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말을 할 때의 입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방식과 모양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입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동물과 다른 차이점은 너무 좁다는 것이다. 사람의 입은 일반적으로 양쪽 눈동자 사이의 거리보다 넓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작은 입이 종종 미인의 필수 조건으로서 커다란 입이 아름다움의 조건으로 인식된 적이 거의 없었다. 특히 빅토리아 시대에는 작은 입을 품위

있고 우아하다고 여겼으며 코와 윗입술 사이에 있는 얇은 고랑인 인중은 그 자체로는 주목을 끌지 못하였으나 인중의 두 능선이 입과 닿은 부분에서 윗

입술이 살짝 위로 올라가고, 인중 사이에서는 입술선이 살짝 아래로 내려감으로서 인중은 윗입술의 우아한 V자형 깊이를 파이게 해 준다.

10) McNeill Daniel. "THE FACE(얼굴)". 언정희 역. 서울 : 사이언스북스.



<그림1> 얼굴 안면 근육

입주름은 입 양쪽에 있으며 두 개의 주름이 양쪽 콧방울에서 텐트처럼 경사지게 뻗어 나와 뺨과 경계를 이루며 입술을 지나 내려간다. 나이가 들면서 보기 좋은 주름은 점점 깊어져 성격의 표식이 된다. 입주름은 미소를 비롯하여 다른 입의 표정을 강조하므로 기분을 알려 주는 핵심 신호이기도 하다. 미소는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본능적 표정이기도 하다. 휴식 상태에서 입은 도톰하게 부풀고 불그스레한 피부층이 짙은 입술선에 의해 분리되어 모든 입술은 얼굴의 마른 피부와 입 속의 축축한 점막 사이의 중간 전이 구역으로서 입술 표면은 혈관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얇아 색이 짙어 보인다.

피부가 얇은 구강점막이 뒤집혀서 빨간 헤모글로빈 색깔이 내비치는 빨갛고 부드러운 입술을 가진 동물은 사람 밖에 없으므로 입술 역시 잠재 의식 속에서 인간성을 나타내는 부위이다. 입술의 기본색은 빨간 색이기 때문에 입술화장은 빨간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서양 미술품에서는 항상 그들의 실제보다 입술이 크게 묘사된다. 그들은 인간성을 확인하기에는 좀 얇은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장으로 보완하려고 했던 것 같다.

뺨은 홍조를 떨 때 붉어지는 곳으로서 유쾌함과 열정을 과시하는 영역이다.

현자들은 “이마를 ‘제3의 눈’ 이 자리한 곳”¹¹⁾이라면서 신비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뺨은 눈에서 입주름까지 이어지는 얼굴 위의 부드러운 살집으로서 내면의 흥분을 표현하는 중심 영역이 되어 앓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여위어서 수척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쁨을 느끼면 뺨은 붉게 상기되고 크게 웃으면 볼록하게 솟아오른다. 여성의 뺨은 남성의 뺨보다 더 볼록해 보이는데, 여성의 코가 더 작은 데다 남성보다 볼에 지방 조직이 많기 때문이다.

얼굴의 신호는 보편적으로서 인종, 문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물이다. 이들 신호는 출생 이후에 시기별로 나타나며 학습과는 거의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본 표정으로서 의지의 바깥 경계에 자리한다. 따라서 얼굴은 신체에서 가장 훌륭한 중계 점으로서 인격을 만든다. 문화 역시 개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얼굴 표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성별, 국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어울리는 표정을 짓는다.

여성의 얼굴선이 남성의 얼굴선보다 완만한 것은 얼굴 근육이 작을 뿐만 아니라 얼굴 지방이 근육을 더 잘 가려 주기 때문으로서 경미한 얼굴 움직임이 덜 감지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전체적으로 여성은 얼굴 표정이 더 풍부하여 고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더 많이 반응한다. <그림1>과 같이 가장 바쁜 근육은 이마 위에 커튼처럼 드리워진 전두근(frontalis)으로서 이 근육은 놀랐을 때 눈썹을 위로 올린다. 이와 길항작용을 하는 근육은 비근근(procerus)으로서 눈썹을 아래로 끌어당긴다. 두려움을 느낄 때에나 입을 수평으로 끌어당길 때에 작용되는 소근(笑筋, risorius)이 미소의 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근육은 웃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근(mentalis)은 뽀루통하게 토라질 때 사용하는 근육으로 턱의 피부를 들어 올려 아랫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다. 모든 신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얼굴형은 쉽지 않기 때문에 화장예술사는 다양한 신체 부위 중에서

11) 대니얼 맥닐, 전게서, p.97.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을 모아 조합해야만 한다. 화장은 시각적인 경험과 자기표현의 본능을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얼굴 위에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3. 화장의 사회성

모든 인간은 유기체로서 욕구 충동에 의하여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 중에는 식욕, 배설, 체온관리, 그리고 2차적인 성적 욕구가 있으며, 지위와 명성은 타인으로부터의 반응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의해 상당한 지배력을 발휘한다. 화장은 사회 변화의 동일한 힘의 지배를 받는 기본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와 연결되어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관념이나 이상 및 가치 등이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모든 사회는 올바르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화장에 대한 어떤 통용되는 기준이 있는 반면, 화장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릇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습관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규범이란 말을 사용하므로 유행 역시 사회 규범체제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유행은 보다 빨리 지나가고 전통에 그다지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변화 한다. 즉, 유행과 관습은 시간에 있어서 차이점을 드러난다. 유행은 보다 빠르게 오고 가는 “동시대의 사람을 흉내 내는 것”¹²⁾이고 관습과 관례는 보다 지속적인 것으로서 옛날 사람을 흉내 내는 것으로 비유, 설명함으로써 관습과 유행을 구별 짓기도 한다. 풍속과 관습은 둘 다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전해 오는 양식에 대한 태도 또는 관행으로서 비교적 오랜 사용 기간을 통하여 확립되듯 변화를 통한 진보를 나타낸다.

유행의 변화는 종종 빠르고 매우 바람직하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추구되기도 하지만 이를 제한하고 방해하려는 힘이 작용하기도 한다. 변화를 증진하는

12) 마릴린 혼, 루이스 구렐, “의복: 제2의 피부”. 서울 : 도서출판 까치, 1995, p.101.

요인들은 우리 자신들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하고, 또한 이것은 현재 증가되는 유행의 위축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화장의 발전을 가져오는 힘은 유행의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외모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얼굴 만족으로 이는 전반적 혹은 부분적인 신체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을 말한다. 자기 개념의 한 부분으로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 지는지 마음속에 간직한 영상을 신체상(身體像)이라 부를 때 신체의 어떤 부분이나 속성에 가치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좋거나 나쁘다든지 아름답거나 추한 신체란 없으며 이는 오직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듯 신체상에 대한 사회적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신체장식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 사회의 미적 기준에 따르기 위해 신체에 그림을 그리거나 문신을 하거나 변형을 주었다. 이상적인 신체상과 지각된 신체상과의 차이는 흔히 조절의 척도로 사용된다. 이 둘 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욱 만족하게 된다. 신체장식은 문화적으로 표준화된 형태로서 제2의 사회적 피부라는 부과물을 구성한다. 그러나 신체장식은 사회적 관습의 관점에서조차 검토할 수 있다. 신체장식은 사회적 자기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로서 실현된 자기의식을 가지며 그 사회 집단의 특정한 신체 또는 외모 관계인 화장을 통해 개인을 변형하기보다는 이상화(理想化)하는 기능을 한다.¹³⁾

신체적 특성에 대한 사실적인 지각과 평가는 자기표현을 할 때 조화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 자기 개념의 발달은 체형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주로 사회적 환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기는 사회적 환경 내에서 거의 화장과 더불어 표현되므로 신체상을 결정짓는 신체 범위는 얼굴에서의 화장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모든 발달단계에서 화장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타인들

13) 혼, 마릴린. 구렐, 루이스.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외 2인 역. 서울 : 도서출판 까치. 1995.

에게도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삶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역할 묘사에 도움을 준다. 그럼으로써 화장은 ‘타인’의 태도나 가치를 흉내 내는 과정에 기여하기도하며, 자신이 느끼는 만족감은 타인에 대한 판단을 상상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는 화장이 사회적 인식이나 관습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관점에서 화장은 일련의 성취된 특성인 인간성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단계로서 가장과 조작을 통한 인격과 사회적 지위라는 속성뿐만이 아니라 붉은 입술, 확대된 눈, 붉은 뺨과 같은 성적 환기를 유발하는 기표를 사용함으로써 성적 속성을 구성한다. 화장이 사회적 신체 위에 인성(人性)이라는 속성을 표현하듯이 화장의 기법과 그 효과의 계산은 의례화 되고 절차 화되는 것이다.

III. 색조화장과 색조화장품의 시대적 변천

1. 색조 화장의 시대적 특징

1) 고대 색조 화장의 특징

고대인들은 “사람 몸의 구멍 뚫린 부분을 통해 악마가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눈가를 검게 칠하거나 입술을 붉게 칠해 악마를 놀라게 하여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¹⁴⁾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귀걸이나 코걸이 등도 같은 목적을 가진 부적이었던 것으로서 미개인들이 얼굴이나 몸에 문신을 하거나 이상한 모양의 부적을 몸에 붙이는 것(그림2)도 그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눈가를 칠하는 화장의 역사는 기원전 2000-1400년경에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서 번영한 미노스 왕조의 크노소스 궁전 벽화에 그려진 여성

14) 하루야마 유키오, 전게서, p.59.

상(그림3)에도 나타나 있다. 이집트에서의 눈 화장은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고대 화장에서 가장 일찍 행해진 것은 눈 화장으로, 눈가를 검게 칠하는 것(그림4)이 화장술의 포인트였다. 이런 화장술은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35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그 무렵은 화장의 의미보다 민속적인 또는 의약적인 목적을 함께 했다. 이집트나 지중해 여러 섬에서는 햇빛이 강렬한 탓에 눈이 염증에 걸리기 쉽고, 작은 벌레들이 눈 속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눈을 지키기 위한 약을 눈가에 칠했다.

이집트인들의 눈가를 검게 칠하는 화장법은 동시에 눈썹을 검게 하여 눈과 균형을 이루게 하는 화장술로서 눈 아래쪽에는 초록색을 눈꺼풀, 눈썹, 속눈썹에는 코울(ko“hl)로 검게 칠하는 강렬한 화장을 했다.¹⁵⁾ 코울을 갠 검은 화장 먹으로 연필처럼 가느다란 막대기에 발라 정성 들여서 속눈썹과 눈썹 밑의 피부에 발랐으며 눈을 강조하기 위해 굵은 선을 눈 주위와 아래 눈썹에 길게 늘어 그렸다. 이때 눈의 양쪽 눈꼬리 부분을 확대함으로써 직선을 눈 바깥쪽으로 구석까지 연장하여 그렸다. 눈썹은 검은 색으로 눈보다 더 길게 늘어 그렸다.(그림5)

B.C 1400년 이집트 중기 왕조의 네페르티티(Nefertiti)여왕(그림6)은 이집트의 화장을 예술의 경지로까지 승화시켰으며 클레오파트라 시대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 네페르티티 여왕은 청색 아이라인인 푸른색 공작석에서 얻은 안료를 눈 주위에 때로는 눈 아래에 그림으로서 이러한 화장술은 시원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곤충으로부터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눈과 입이 남성을 매혹시킨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집트에서 불과 입술에 사용된 연지는 붉은 황토 흙 오우커(Ocher, 그림7)를 양(羊) 기름으로 반죽해서 붓을 이용하여 홍색의 연지는 입술에 뺨에는 분홍색으

15)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 수문사. 1996, p.17

로 칠해졌다. 그리고 이마를 밝게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는 젊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집트인의 화장술은 세련되고 강한 색채감각을 나타내었다. 시대에 따라 인류의 미에 대한 화장개념은 차이로서 불이 붉게 보이도록 하는 불연지와는 달리 요즈음은 광대뼈가 낮아 보이도록 하는 불연지 화장을 한다. 이렇게 인간성을 상징하는 부위는 강조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약화시키는 것이 화장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리스 여인들은 백연이나 석회, 백묵을 얼굴에 바르고, 붉은 무화과, 으깬 장과(漿果)로 붉게 칠했다. 눈은 사프란 가루나 회진(灰塵)으로 장식하고, 속눈썹과 눈썹은 검게하고 달걀 흰자나 암모니아고무를 섞은 기름을 발랐다. 여성들은 아침에 일어나 뷰티 마스크를 사용하여 얼굴을 닦아 내고는 납으로 된 흰분을 발랐으며 1866년 아연 분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화장하는 여인은 판도라처럼 자연의 섭리를 어기는 것으로 비난함으로서 여성의 화장은 금기 시 되었다. 화장은 매춘부와 같은 여성중심으로만 이어졌고, 화장한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높았다.¹⁶⁾ 그리스 시대 역시 심미론의 대상이 된 커다란 눈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신체의 아름다움으로 찬미되었으나 이집트에서와 같이 짙은 눈 화장은 하지 않았다.

로마 시대가 되자 짙은 화장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얼굴에 잔뜩 연지나 분을 칠하게 되었는데 눈가를 검게 칠하는 풍습도 계속 이어졌다. 로마 시대의 화장은 그리스 화장과 거의 비슷하나 좀 더 짙게 함으로서 얼굴에는 납 가루를 붙에는 연지를 칠했다. 로마 여인들의 “붉은 아르카나나 연단(鉛丹)으로 붉게 칠했으며 치아는 의치가 아니면 빨을 입혔으며 구취제거에 파출리를 썼고 여드름과 사마귀는 애교점으로 가렸다.”¹⁷⁾ 이처럼 이 시대의 화장이란 물질적 풍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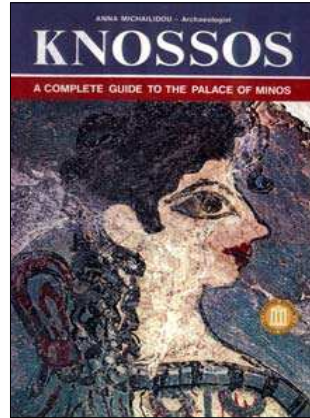
16) 도미니크 파케 “화장술의 역사, 거울아 거울아”, 지현 역, 서울 시공디스커버리출
서, 1999

17) 전선정 외 3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 청구문화사, 2001, p.62

여유의 표현으로서 신체적 노화를 감추기 위한 분장의 수준이었다. 남자도 여자와 같이 화장을 하였으며 사랑에 빠진 남성은 창백하고 수척해 보여야 했다. 로마의 전성시대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여 신체의 모든 부분을 과도하게 꾸몄는데, 눈은 안티몬이나 사프란으로 검게 화장하고 짙은 눈썹이 특징이었다. 눈썹을 아름다운 활 모양의 곡선으로 그리는 것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행해지던 화장법인데 좌우 눈썹의 간격이 코 위에서 붙는 편이 좋은지 떨어지는 편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나라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예를 들어 그리스 여성들은 좌우의 눈썹이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로마 여성들은 반대로 인공적인 방법으로 눈썹을 키워서 좌우가 붙도록 만들었다. 아라비아 여성들(그림8)은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눈가를 검게 칠하는 화장술로서 좌우의 눈썹이 서로 붙도록 그렸다. 이집트, 앗시리아, 페르시아, 인도 등의 여성들은 눈썹을 그릴 때 색칠할 때 양쪽을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서 그렸으며 양쪽 눈썹 끝이 눈 꼬리에서 약간 더 길게 보이도록 손질했다.



<그림3>
미개인의 치장



<그림3>
크노소스궁전벽화에 그려진 여성상



<그림4>
고대이집트의 화장



<그림5>
Goddess ISIS, Tomb of Horemheb (13301305 BC)



<그림6>
Queen Nefertiti
(12791212_BC)



그림7>
우커(Ocher)



<그림8>
고대아리비아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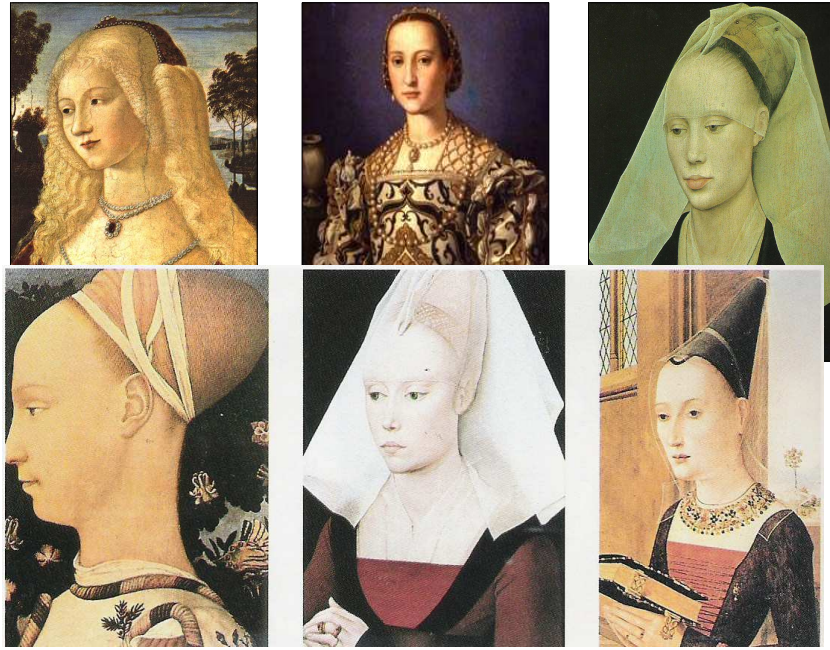
2) 중세 색조 화장의 특징

중세시대에 이르러 화장은 기독교의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화장은 신에 대한 모독으로서 불경스런 것으로 금기시 된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교회가 화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여성들이 눈에 띄는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로마의 화장술이 남아 있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여성들의 두꺼운 화장과 함께 눈썹은 다듬었으며 검은색으로 선명한 형태를 그렸다.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가 여성의 멋 내기를 혹독하게 비난하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화장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의 영향을 받아 화장을 음탕함과

매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화장을 한다는 것은 신이 주신 자기 본인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는 것은 사악한 모습을 가리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십자군 전쟁 이후 동양에서의 문물이 전해지고 의학과 과학의 발달도 화장품과 화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되 살아 난다.¹⁸⁾

13세기의 이탈리아 시인 리카르도 푸르니발은 여성의 금발머리는 황금실, 눈은 매의 눈과 같으며, 눈썹은 갈색으로 활처럼 구부러졌고, 장밋빛의 작은 입술은 정원에 있는 장미처럼 붉고, 이빨은 하얗고, 손은 아주까리 열매보다도 아름답고, 손톱은 섬세하며 길다(그림9)고 형용하였는데 이는 중세 여성이 가장 아름다움의 기준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3-15세기에 유행했던 화장술은 그리스나 로마처럼 피부를 희게 가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얗게 보이기 위해 흰색과 핑크색의 수용성 안료를 사용하였다. 눈썹을 가늘게 하여 아치처럼 둥글게 다듬어서 이마를 넓어보이게 했다. 치아도 희게 가꾸었으며 입술과 뺨, 손톱은 붉은 색을 선호했다. 14-15세기 여성의 입술은 붉은 색으로 볼륨 있는 도톰한 형태가 시대 공통으로 선호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장미색 계통의 입술연지가 독일과 영국에서는 오렌지색 계통, 프랑스에서는 진홍색 입술연지가 사용되었다.

18) 이현주, “화장으로 읽는 여성문화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9



<그림12>
중세여인들의화장

3) 근대 색조 화장의 특징

16-17세기 무렵 눈 화장은 눈썹을 검게, 눈빛을 축축하게 보이기 위해 가지과에 속하는 식물인 벨라도나(belladonna, 그림13)의 즙으로 동공을 확대하기도 하였고 쥐의 피부로 인조눈썹을 만들어 아교로 붙였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르네상스는 유럽에서 전성기를 맞았는데 르네상스 인들은 현실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강한 자아의식과 개성의 자각을 위하여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을 찬양하고 인간 자체를 고유의 가치와 원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건강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육체의 미를 찬양하였다. 화장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여 화장을 안 한 상태로 외출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화장은 사교를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

16세기 당시 패션의 리더였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1533~1603, 그림14)는 영국 통치기간 동안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사치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던 물건들과 함께 화장법도 들여와서 얼굴에 분을 반 인치(약 1.3cm)나 되는 두께로 칠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여왕의 화장은 그대로 궁중 여성들과 귀족 부인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세익스피어가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기간 말엽(1590)부터 여왕이 죽은 이후인 1611년 사이였는데, 그는 자신의 희곡에 ‘화장하는 것’을 ‘페인팅’이라고 썼다. 이는 그 무렵의 신조어로 페인트공이 페인트(물감)를 칠하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진 말로서 정성 들여서 화장 얼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17세기 초반에 영국 시인 리처드 크래쇼는 “여성이 정성을 들여 진한 화장을 하는 행위를 메이크업(make-up)”¹⁹⁾이라고 불렀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창백한 얼굴이 유행하게 되어 여성들이 사소한 충격에도 혼절하는 것이 매우 가련하고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녀들은 언제라도 정신을 잃을 수 있도록 평소부터 연습해 둘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그 무렵은 코르셋으로 몸을 단단하게 조였기 때문에 작은 충격만 받아도 기절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또는 감각의 변화로 ‘얼굴에 색을 칠하는 화장’은 유행에 뒤떨어지게 되어 기나긴 역사의 막을 내렸다. 할스(1581~1666, 네덜란드의 뛰어난 초상화가)의 「여인의 초상」에서 이러한 바로크적 특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살이 찐 얼굴은 팽팽하게 부풀어 있으며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더욱 도톰하여 짙은 루비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능미를 발산시켰다.(그림15)

고대부터 유럽에서는 분을 잔뜩 바르고 그 위에 연지를 바르는 화장법은

19) 하루야마 유키오, “화장의 역사”, 임희선 역, 서울 : 사람과 책, 2004, p.80.

18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의 유행으로는 분이 바탕이었고 연지가 주된 화장이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루이 왕조 궁정에 있는 여성들과 귀족 부인들이 더욱 짙은 연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연지는 ‘베르사이유 연지’라고 불렸다.(그림16) 프랑스에서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나 귀족 사회가 붕괴되어 다양한 유행들이 사라지자 창백하고 감상적인 화장이 유행했는데 이때 연지를 잔뜩 바르는 화장은 천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때 영국에서도 17세기 청교도에 의한 시민혁명이 일어나 청교도적인 검소한 생활이 일반화되었다. 17세기의 윤리주의자들은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그녀의 영혼을 훼손시키며 신의 작품을 망치는 것으로 화장을 간주했다. 화장에 가장 활성화 됐던 사회는 아주 고대 시대이거나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였다. 극단적인 시대에 화장은 점점 대담해졌다. 패션과 정치는 화장의 스타일을 결정한다.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세의 아름다움의 원형이었던 여리고 가냘픈 여성의 모습보다 따뜻한 혈색에 크고 검은 눈을 지닌 풍만한 여인으로 나타난다.

프랑스에서는 혼란하고 무분별한 메이크업이 성행하였는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패치(patch: 애교점)의 사용이었다. 배우들이 얼굴에 발랐던 무슈는 패치라고도 하며 17세기 후반에 대유행하였다. 당시 패치는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믿었고 주근깨와 여드름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성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귀족들이 사용한 연지의 붉은 빛은 진홍색에서 자홍색, 장미색, 주홍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입술 주위는 밝은 색조로 칠했고 광대뼈와 눈 가까이에선 원형으로 둥글게 연지를 발랐다. 중산 계급의 여인들은 볼 위에 연지를 넓게 발랐으나 베르사이유 궁전의 공주들 ‘루이 15세의 딸 앙리네뜨’ (그림17)는 짙게 발랐다. 여인들은 연지를 대단히 중시했으며 주머니 안의 작은 상자에서 화장 붓, 거울 등을 꺼내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붉은 볼을 그렸으며 화장을 새로 고쳤다. 그러다가 1750년경 자연과 육체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바로크 중의 과도한 치장은 점차 사라져 갔다. 프랑스의 궁정 초상화가 나티에(Jean-Marc Nattier, 1685-1776)의 「앙리에뜨의 초상」은 바로크시대의 관능적인 볼 화장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나를 보여준다.(그림18) 거의 양홍색에 가까운 강렬한 볼연지가 두 뺨에 가득하게 칠해져 있는데 특히 궁중의 여인들은 더욱 짙게 볼연지를 발랐다. 생기 있는 관능미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연지가 광적으로 선호되었는데 나이에 따라 장미빛에서 짙은 양홍색에 이르는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였으며 잠을 잘 때도 옅은 색의 연지를 발랐다. 루벤스(1577-1640, 플랑드르의 위대한 화가)는 가장 바로크적인 여인들을 많이 그렸는데 「Susanna Fourment의 초상」(그림19)에서 보여지듯 짙은 볼연지의 바로크 풍 메이크업이 정형화 되어있고 가슴은 속옷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노출되어 관능미를 자랑하고 있다.

바로크시대의 성직자들과 작가들의 수다스러운 불평에도 불구하고 보통사람들은 화장한 얼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여성들의 본능이 바로크의 시대정신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메이크업의 엄청난 변화를 초래시켜 비현실적인 중세풍의 금옥과 질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여인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많은 여자들이 흰 파우더를 쓰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상류층의 여자들은 살색(flesh), 핑크색의 창백한 메이크업 베이스인 백연(분)을 썼다. 화장은 가끔 피부 주름을 가리기 위해 두껍게 발라지기도 했고 화장이 얼굴에만 혹은 얼굴과 목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였다. 매트하게 화장한 얼굴과 대조되게 에나멜의 번쩍임이 쓰여지기도 했다.

18세기에는 젊은 여성들이 감상적이고 눈물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짙은 화장을 삼가 했을 뿐만 아니라 식욕을 드러내는 일은 천하다고 간주하였다. 풍조는 19세기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바로크 시대 여인들은 볼그레한 뺨

과 입술이 인기가 있었고 아랫입술은 윗입술보다 커야 했다. 뺨의 연지는 볼의 전면에 넓게 칠했으며 뺨의 홍조는 지나치게 넓고 생생하게 표현했다. 로코코 시대는 볼과 입술에 루즈(rouge)를 칠한 후 뺨에는 패치를 붙였는데, 이런 남성이 세련된 신사로 간주되었다. 18세기 말에 예방 접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얼굴이 곰보인 사람이 많았다. 그런 얼굴과 주근깨를 감추는 것도 짙은 화장을 한 목적의 하나로 납 가루를 달걀흰자로 반죽한 것을 얼굴에 발라 지저분한 것을 감췄는데, 마치 유약을 바른 도자기나 대리석을 닦아 놓은 것처럼 두껍게 발랐다. 흰 납 가루로 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 시대였는데 그것이 영국 문헌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16세기가 된 다음으로 외과의사가 사용하는 바르는 약의 일종이었다. 18세기 로코코 시대는 파우더의 사용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다. 예를 들어, 약간 구름이 낀 상태 정도를 파우더의 ‘상아’라고 부르며, 순백색의 것은 ‘서리’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파우더를 바르는 방법에도 기술이 필요하였다.

프랑스 혁명 시대 파우더는 왕통 파에 의해 면면히 이어졌고 이들에 의해, 가발은 계속하여 사용되었다. 색상은 주로 회색이었다. 구태 의연한 스타일의 왕통파를 혁명파들은 뮤스타간(향수 취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은 정장을 입고 사향(麝香)의 향수 사용에서부터 분리어진 이름이다. 혈관은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치장하였으며 패치를 붙이는 것도 매우 유행하였다. 패치는 둥근 모양 외에도 별, 십자가, 색색의 동물형들이 사용되어졌는데 표면에 고무를 입혀 방수한 검은 견 또는 종이의 작은 조각이 이용되었고 귀부인들은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넣기도 하였으며 가면은 18C 후반까지 사용되었는데, 가면 위에조차도 패치가 사용되어 패치의 사용은 극치를 이루게 된다. 이가 빠져 뺨이 들어간 부분에는 플럼퍼(plumper)라는 패드를 넣어 뺨을 통통하게 만들었다.(그림20) 18-19세기 화장이 시작된 것은 르네상스 이후 이탈리아로부터 처음에는 눈썹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여 눈가를 검게 칠하는 화장이 유행했는데 이런 멋 내기는 18세기까지 프랑스나 영국으로는 전해지지 않았다.

눈썹을 검게 하는 화장이 프랑스나 영국에서 멋내기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가 된 이후부터로서 마스카라(mascara)를 사용하여 속눈썹 화장을 처음 한 나폴레옹 3세의 황후인 유제니(Eugénie, 1826-1920, 그림21)는 스페인 태생으로 그녀를 통해 속눈썹 화장이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전해졌다. 19세기 후반은 빅토리아 여왕(Alexandrina Victoria, 1819-1901)시대였는데 여왕(그림22)은 1861년에 남편을 여의었고 그 이후로는 상복을 벗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류 사회의 풍속이 되어 입술에 연지를 칠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가볍게 문질러서 혈색을 좋게 하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미(美)는 있는 그대로의 귀여움, 어린 아이다운 얼굴을 새긴 동판화로 불후의 명성을 남겼다. 하지만 이 포착하기 어려운 목표를 얻기 위해서 여성들은 그들의 상상력을 사용해야만 했다. “여성들은 토끼의 발이나 브러시 파우더나 립스틱을 가볍게 발랐다.”²⁰⁾ 여성들이 비난 없이 바를 수 있는 화장품은 오직 삼홍색 빛의 입술 연고였다. 갈라진 입술에 윤기를 주는 것은 종교를 모독하는 것도 윤리를 어기는 것도 아니었다.

19세기에 들어서서 화장품 화학이 진보하자 새로운 화장품이 나타났다. 화장이나 패션에 의해 눈썹의 미학이나 화장법도 화장의 발달로 약간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대개의 경우 눈썹은 기쁨에 넘칠 때는 위로 움직이고, 슬플 때는 아래로 움직인다. 만약 눈썹의 털이 너무 많으면 무거운 그림자를 눈 위에 떨궈서 슬프거나 때로는 흉악한 표정이 된다. 중국인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눈이 크지 않다는 것, 또는 눈에 빛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눈썹을 밀고 가느다란 선만 남겨 놓고 있다. 19세기 말 무렵 영국의 윌리클락슨 부인이 그 시대의 젊

20) Sharon Romm, “미의 변천사(The Changing Face of Beauty)” 김조용 외 3인 역, 서울 : 군자출판사, 2002, p.221.

은 멋쟁이 여성을 위해 인조 속눈썹이 미용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공적인 속눈썹’이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런던에서 러시아 발레가 큰 성공을 거두어 동양적 취향이 의상이나 인테리어, 화장 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부터이다. 화학적으로 제조된 다양한 화장품이 나타나게 되어 눈을 화장하는 마스카라나 아이펜슬(eye pencil), 아이섀도 등의 화장품이 가게에 진열되었다. 한편 옛날식으로 집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풍습도 그대로 남아 있어 램프 또는 촛불에 접시를 그을려서 숯을 모아 그것으로 눈썹을 그리는 방법이 행하여졌다. 특히 1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화장품 사용이 안정을 찾아서 피부용 크림과 가루분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눈 화장(eye cosmetics)으로 아이섀도와 마스카라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것들의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1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런던에서 디아길레프의 러시아 발레가 대성공을 거두고 동양풍의 취미가 의상이나 인테리어, 화장술에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게 된 때부터였다.



<그림13>
벨라도나
(belladonna)



<그림14>
엘리자베스 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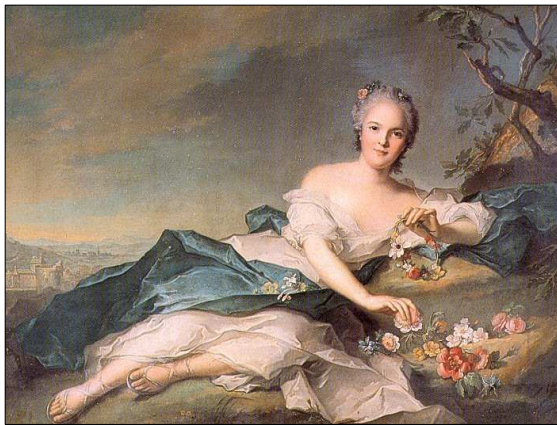
<그림15>
할스의 여인의 초상



<그림16>
프랑스 루이 왕조 궁정
여성의 초상화



<그림17>
Portrait of Daughter of
Louis XV



<그림18>
Henrietta of France as Flora
(1742)



<그림19>
Portrait of Susanna
Fourment
(Le chapeau de paille)



<그림20>



<그림21>
나폴레옹3세부인
유제니(Eugénie)



<그림22>
빅토리아여왕
(Alexandrina
Victoria)

4) 현대 색조 화장의 특징

20세기 초에 유행을 창조해 나가는 아름다운 화류계의 여성들은 무대화장을 하고 외출하였으며 그녀들의 자유로운 풍속은 신문에 기삿거리로 실릴 정도

로 사회적으로 화제였다. 화려하고 통속적인 이러한 여성들은 상상 속의 에로틱한 욕망을 지배하였고, 흰 피부는 젊음을 상징하므로 투명한 피부에 대한 예찬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사항이며 더욱더 흰 얼굴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흰 얼굴을 갖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의무였으므로 백묵파우더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보다 오래된 것으로는 쌀가루로 된 파우더를 사용하여 더욱 더 희게 표현하였다. 흰 피부에 대한 예찬은 여성스러운 미와 유혹에 대한 유의성은 태고적부터 거의 모든 문화에서 공통된 사항이었다.

1920년대 입술은 진한 색으로 작게 그리는 화장이 그 당시의 대표적인 화장패턴이었다. 시대가 바뀌면 사회는 그때그때 적당한 준칙을 만들어 낸다. 전쟁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했다. 이 시대 헐리우드의 배우 클라라 보우의 빨간 입술은 유명하다. 그리고 눈 화장이 화려하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로서 모발 색에 맞춘 다섯 가지 아이펜슬 색이 판매됨으로서 거의 모든 여성들이 화장품 가방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눈썹을 가늘게 보이기 위해 털을 뽑는 유행은 그 시대에 사라지고 대신 아이펜슬로 선을 그리는 방법이 일반적이 되었다. 붉은 머리카 금발머리에는 옅은 갈색이 좋고 회색 또는 백발의 여성에게는 회색이 좋다는 식으로 색을 구분해서 쓰는 방법이 자세하게 알려졌다. 일반적으로는 자기 모발 색 보다 약간 짙은 색을 사용하였으며 극적인 효과를 노리려면 두 종류의 짙은 펜슬을 사용한다거나 강렬한 햇빛 아래서 약간 튀는 효과를 얻으려면 밝은 녹색, 파란색, 갈색 등을 쓰는 식의 화장술이 최신 풍속이 되었다. 눈썹이나 속눈썹에 땀이 흐르는 것을 막아 주고 먼지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설과 미학적 목적으로 특히 눈썹의 곡선이 지나쳐도 또는 모자라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설과 함께 인간의 눈썹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다른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눈썹을 속아내 희미하고 가

늘게 하는 눈썹 화장술은 여성적 특징을 강조하는 여성 지향적 화장술이라 할 수 있다.

1920년대에는 눈두덩에 색을 칠하고 눈썹에 기교를 부리는 것이 매우 세련된 화장술이었다. 1920년대 말부터는 여성들의 화장의 색조나 스타일도 더 진하고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전쟁 기간 동안에는 얼굴을 하얗게 꾸미고 눈매를 약간 뚜렷하게 하는 정도였으나 여성의 화장이 보편화되면서 눈과 눈썹의 라인도 더욱 뚜렷하게 다듬고 색을 입히는 등 인공적으로 꾸미는 유행화장패턴이 일반여성들에게 널리 확산되었다. 대중영화가 급속히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여배우들의 화장스타일은 일반인들의 화장패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눈썹을 뽑아 아주 가늘게 다듬고 눈썹용 연필로 세심하게 그렸으며 눈은 코울과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여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1930년대에 마스크라와 아이새도가 밤에 하는 화장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특히 아래쪽 속눈썹 밑에 그림자를 그리는 것이 멋지다고 여겨졌다. 1932년에 런던에서 무지개색 (진주색) 아이새도가 판매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여전히 밤 화장술로서 낮의 밝은 햇빛 아래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 눈이 멋지다고 여기는 것이 그 시대 화장의 주류였다. 그러나 이런 화장은 1933년 무렵이 되자 무대 이외의 장소에서는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눈 화장은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경향으로 바뀌었다가 2차 세계대전 후 마스크라와 아이새도가 낮 화장이 되었다. 전쟁 이후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변화로 1940년대에는 눈이 강조되고 진한 붉은 입술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았다. 눈썹은 두껍게 그렸으며 눈 끝은 더 길게 위로 올려 그렸다. 1950년대까지 메이크업(얼굴을 칠하는 화장)은 연극과 영화의 세계로 한정되었고, ‘얼굴을 칠한 여자(Painted-Woman)’라는 말은 불성실한 여성의 대명사였다. 오드리 헵번의 강렬하면서도 가시적인 눈 화장은 50년대 동안 계속되었다. 이러한 강한 눈 화장은 눈썹과 눈만 강조하여 회색이나 녹색의 아

이새도우를 칠한 후 검정색의 아이라이너를 진하고 길게 꼬리를 늘려 그려 여성적이고 정열 적으로 표현했다. 먼로는 아이새도우는 강한 색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아이라이너로 굵게 끝을 올려 그리고 인조 속눈썹을 붙인 다음 마스카라를 많이 칠했으며 눈썹은 두껍고 각이 지게 그렸다. 마릴린 먼로(1926-1962)의 화장 중 빨간색으로 강조된 윤기 있는 입술은 당시 여성들의 선망으로 먼로 입술은 붉은 색을 사용해 아웃커브로 그렸는데 바셀린으로 광택을 냈고, 그녀의 윤기 있는 입술은 일반 여성들에게도 유행되었다. 1955년 무렵부터 3년간에 걸쳐 영국과 미국의 부인잡지에서 눈 화장술에 대한 기사가 다른 화장품의 사용법보다 훨씬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그 업계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2차 세계대전 후인 1957년에 런던에서 『아라비안 나이트』의 ‘키스메트’(그림23)라는 연극이 상영되어 환상적인 의상을 입은 아라비아 미녀들이 2센티미터나 되는 속눈썹을 붙이고, 금색 유리 가루로 눈가를 둥글게 칠한 것이 아이새도를 유행하게 한 원인의 하나였다고 일컬으며 이 연극의 스타였던 드레타 멀로는 한낮에 외출할 때도 무대에 있을 때와 똑같은 눈 화장을 하고 나타나 영국의 상류층 여성들을 유혹했다.

눈 화장이 갑자기 세계적인 붐이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부터였다. 그 무렵 미국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눈가를 검게 그리는 눈 화장법이 지금 미국 부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미용 계에서는 입술 연지 이후 가장 혁명적인 화장법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화장술은 “우선 눈두덩에 검은 크림을 발라 인공 속눈썹에 짙은 그림자를 주고, 브러시로 눈의 윤곽을 그린 다음 마지막에 눈썹을 수정” 21)한다.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이것을 평하기를 기원전부터 이집트 여성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화장술의 재현이라고 했다. 눈 화장이 입술화장한테서 주인공 자리를 빼앗아 세계적으로 유

21) 하루야마 유키오, 전게서, p.65

행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예상은 얼마 후에 실현되어 눈 화장이 세계 여성들의 얼굴 화장의 중심이 되었으며 낮에 하는 몇 내기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화장이 주로 영화배우와 같은 대중스타들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모방의 단계였다면, 1960년대 이후부터 20세기 후반까지는 청년문화의 등장으로 기존의 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계층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화장이 등장한다. 머리카락은 느슨하게 벗겨지고 치아는 짧아지거나 바지로 대체 되었고, 얼굴은 진한 아이라인과 인조 속눈썹으로 지나치게 눈을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한 가발, 기하학적 모양의 눈 화장, 흰색 립스틱의 등장으로 인한 창백한 입술화장 등이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화장은 당시의 대담한 패션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전위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청년세대에 있어서 화장이란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나 미의식에 대한 반향과 저항의 도구의 의미로서 사용되었으며, 60년대 후반 히피문화의 출현은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70년대에는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 즉 전통적인 여성의 화장이나 패션의 틀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화장하지 않는 자연스런 모습과 편안함이 강조된다. 70년대 말 핑크의 등장은 남녀 구분 없는 화장, 창백한 얼굴표현, 검은색의 입술표현으로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와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을 화장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핑크화장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²²⁾

1980-1989년 칼라가 강세를 보인 시대이다. 매트한 느낌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메이크업에 있어서 질감을 중요시하고 투명 감을 살리는데 주력했다. 칼라 마스크라가 등장하는 등 새로운 제품이 많이 개발된 시기로서 눈썹을 강하게 그렸다. 여성이 남성처럼 눈썹을 짙게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은 본래의 얼굴에

22) 이현주, “화장으로 읽는 여성문화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76

가까운 자연스러운 색조화장을 함으로써 남자가 옅은 화장을 한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하거나 흰색이 많이 포함된 광택 없는 색조 화장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것처럼 표현했다. 80년대에 강한 영향을 끼친 것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매체이다. 많은 스타일이 공존했으며 유행은 들어오자마자 급속히 중심무대에서 밀려났다. 남자와의 협력과 경쟁에 있어서 80년대 여성들은 더 이상 여성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따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것은 화장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화장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변화했음을 의미했다. 1984년 겔랑에 의해 발명된 파우더 개발. 미네랄 색소들을 함유한 파우더는 1년 내내 여성들의 안색을 좋게 하고 20g 가량의 작은 붓은 주머니나 손가방에 들어가기 쉽게 고안되었다. 자연스러운 화장, 테라코타(Terracota)의 성공은 안색을 개선하는 제품의 길을 열었다. 3년 뒤 겔랑은 다양한 색채의 작은 구슬 모양으로 압축된 파우더를 붓을 사용해 화장을 하도록 한 메테오리트(météorites)의 개발이었다. 붉은색은 안색을 좋게 하고 초록색은 붉은 빛을 완화시키며 연보라색은 피부를 투명하게 하며 흰색은 안색을 밝게 하며 금색과 진주색은 광채를 주었다.

1985년 ‘무광택’ 립스틱이 등장한다. 샤넬 사는 약간의 푸른빛이 도는 진홍색 립스틱과 밝은 갈색의 립스틱을 출시하였다. 팔로마 피카소(Paloma Picasso)는 1년 뒤 ‘나는 항상 진짜 립스틱을 찾아왔는데 이제야 나만의 것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몽루즈(Mon Rouge, 나의 립스틱)’ 라 이름지어진 이 립스틱은 독특한 색상으로 만들어져 상업화된 덕에 모든 여성들을 위한 각자의 립스틱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들의 미(美)나 젊음은 건강과 같은 외모가 중시되고 강요되던 시기이다. “육체는 도덕과 종교적 정의를 상실한 채 영혼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고통에 대한 인내력은 감소된다 ” 라고 필립 베로는 강조했다.²³⁾

화장의 한계로 인해 성형외과는 비약적 발전을 하였다. 보여지는 탱탱하고 부드러운 피부는 신비감을 잃을 채 새로운 의상처럼 이상적으로만 보여진다. 옛날 부풀림으로 과장된 치마의 뒷부분이나 코르셋으로 올려진 가슴, 모자의 베일에 가려진 입술과 눈은 그 관능적인 자태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입술은 콜라겐 주입으로 부풀려지고 엉덩이와 가슴은 실리콘 쿠션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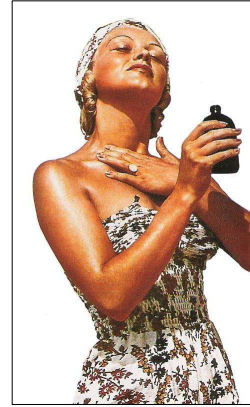
23) 광현심외6인, “美 100년사 100ANS DE BEAUTE”, 서울:현문사, 2001



<그림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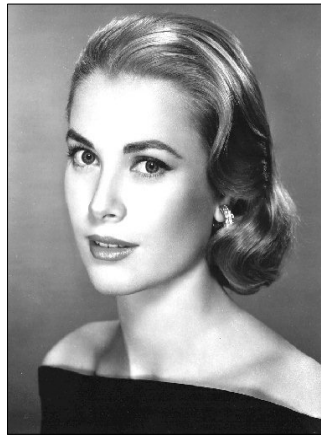
<그림24>



<그림25>



<그림26>
그레타 가르보(1930년대)



<그림27>
그레이스 켈리(1940년대)



<그림28>
오드리 햅번(1950년대)



<그림29>
히피문화
(1960년대)



<그림31>
Twiggy(1960년대)



<그림31>
티나 터너(Tina Turner)
(1970년대)



<그림32>
펑크문화(1970년대말)



<그림33>
존 콜린
(1980년대 복고풍)



<그림34>
Dior사의 모델
(1990년대 자연미)

2. 색조 화장품의 시대적 특징

1) 고대 색조 화장품의 특징

인류가 언제부터 화장을 시작했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치 않으나 B.C. 5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전 고고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화장품이며 화장 용구가 이집트의 제1왕조 묘에서 지방에 향을 넣은 화장수와 화장경(化粧鏡)이 발견됨으로써 인류의 화장 기원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거의 모든 사회 집단들은 그들 문화에 비밀스럽게든 드러내놓든 간에 아름답게 만드는 물질을 허용해 왔다. 고대인이나 현대인들이 사용한 화장품은 3가지 목표로서 구성된다. 루즈, 아이 새도 같은 화장품은 외모를 강조하거나 축소, 확대시켜 주며 눈 화장은 얼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며 피부색을 개선시키거나 지속시키는 피부 화장은 매끄러움을 강조한다.

B.C. 3000년부터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용술이 종교적 의식의 절차에서 몸을 단장하는 것으로서 중요시 여겨졌고 이러한 의식은 성직자 계층에 의해 담당되어졌다. 이집트인들의 영원불멸 사상에 따라 성직자들은 제단에 바치는 향료 등을 만드는 데에 골몰했고 그것들을 의식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했다. 이집트인은 이 당시부터 맬러카이트(malachite, 청동, 그림35)를 원료로 초록색 계통의 색들을 다양한 톤으로 뽑아 낼 수 있었다. 맬러카이트는 아프리카, 러시아의 우랄산맥 일대, 영국의 크라운웰(cornwell) 지방, 미국의 아리조나주, 호주 등지

에서도 생산되었다.²⁴⁾

B.C. 1450년 이집트의 여왕 하세프수트는 화장품의 원료가 풍부한 폰트로 대규모 원정을 해서 1세기까지 이집트는 페니키아인이 전 세계에 보급한 화장품 원료의 가공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화장품으로 유황성분이 섞인 납 종류인 갈리너(galena, 그림36)와 안티모니(antimony, 그림37)도 사용했다.²⁵⁾ 이집트인들의 화장은 자연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학적인 기능 이외에도 상징적인 의미도 가졌다. 예를 들면 이집트인은 코울(Kohl, 그림38)로 아이새도와 아이라인을 그렸는데, 이것은 뉘러카이트와 갈리너, 안티몬의 가루를 동물 기름과 섞어서 만든 액체였다. ²⁶⁾ 종교, 의약, 장식에 기원을 둔 향장품은 점차 세속화됨을 나타낸다. 향료 역시 고대로부터 취급되어 온 화학 물질의 하나로서 이집트의 기록에 많은 종류의 “연고와 화장료의 술어에서 특수한 명칭이 붙은 35종류의 연고 중에서 22종류는 기원전 160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중 10종류는 약제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대부분은 의식에 관련” ²⁷⁾된 것이다. 나머지 13종류 중에서 1종류의 약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장용이다. 향료의 제조에 관한 기록에서 꽃, 과일, 씨앗으로부터 향수를 만들 때에 이용되었던 방법은 ‘냉침, 침적, 압축’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냉침은 꽃잎을 동물성 지방 위에 얹고 향기가 지방에 흡수되면서 지방이 향기로 가득 차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향유로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화장품이었다. 침적은 섭씨 약 65°의 지방이나 기름에 꽃을 담그었으며 향료 제조사는 꽃이나 종자로부터 정유나 향수를 짜내기 위해서 포도주나 기름 제조에서 사용되는 압축기를 이용하였다. 이 외에 눈 화장을 위해서 화장료, 풍

24) 전선정 외 3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 청구문화사. 2001

25) Beauty&Health 연구회. “메이크업 & 스타일 100년사”. 광형심 외 7인 역. 서울 : 현문사. 2001.

26)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 수문사. 1996, p.12, p.27

27) 오진곤 편, “화학의 역사”, 서울 : 전파과학사, 2002, p.27.

토병이나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나 파리를 쫓기 위해서 미안수를 얼굴에 바르는 경우도 있었다. 눈에 바르는 화장료가 담겨진 2중 내지 3중으로 된 고대의 관에는 시력을 지켜 주는 것 또는 피를 멎게 해주는 등의 설명서를 붙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집트인은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향수를 사용하였는데, 꿀, 포도주, 싸이프러스(편백나무의 일종) 등 16가지 성분을 섞어 제조하였고 이집트의 제사장은 향수의 제조를 감독했으며, 왕을 비롯한 귀족들은 목욕재계하고 온몸에 향수를 바르는 절차를 거쳐야만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이집트인은 그 밖에도 식물기름과 라임, 향수를 섞어 크린싱 크림(Cleansing cream)을 만들었고 톱밥과 향유를 섞어서 피부에 발랐으며 사용된 유향과 테레빈유는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였다.

기원 1만년전에 최초의 회화에 사용된 색채는 붉은색과 황토색 등의 물감이 동굴과 매장 장소에서 발견됨으로써 장식예술과 디자인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²⁸⁾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Plinius)는 그의 저서에서 다섯 종류의 적색 물감, 세 종류의 청색 물감, 두 종류의 녹색 물감을 기록하고 있다. 적색 황토는 이집트의 선왕조 시대부터 매우 넓게 이용된 물감의 원료로서 거의 황토였다. 등색 물감은 이집트에서 적색과 황색의 황토를 혼합해서 사용되었고, 기원전 4000년 무렵의 화가의 팔레트에서 발견되었다. 갈색 물감은 이집트의 다그파 오아시스에서 생산되는 또 다른 종류의 천연 황토로 만들었다. 제18왕조의 어떤 상자의 갈색 물감은 황토와 석고의 혼합물이다. 흔히 갈색 물감을 얻기 위해서 흑색 물감 위에 적색 물감을 칠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타 혼합물로는 흑색 위에 적철광 혹은 적철광 위에 황토를 칠하였다.

녹색 물감은 한정되어 있었다.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에서 처음에는 분말 상태의 염기성 탄산동이 천연 형태로 사용되었거나 천연의 규산동 수화물이 사용

28) 박우찬. “서양미술사 속에는 서양미술이 있다”. 서울 : 재원. 1998, p.23

되었다. 또 모래와 알칼리와 동광을 녹인 뒤, 이를 분말로 만들어 녹색 물감으로 사용하였다. 흑색 물감은 대개 숯이었지만 이집트에서는 매연을 사용하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눈 화장이 유행하였는데 주로 방연광(PbS , 그림39)이나 자연산 이산화망간(MnO_2 , 그림40)이 이용”²⁹⁾되었다. 고대 잉크에는 숯이 이용되었고 중국의 묵은 탄이었다. 역사 이전의 인류는 백색 물감으로 백토를 사용하였지만 이집트 사람은 석고($CaSO_4 \cdot 2H_2O$, 그림41), 석회석($CaCO_3$, 그림42)을 아시리아 사람은 주석의 산화물을 이용하였다. 연백(鉛白, 그림43)은 백색 물감으로서 중요하며 얼마 전까지도 섬세한 화장 분으로 이용되었다. 청색 물감은 한정되어 있었고 이 물감은 분말로 된 터키 구슬(球璣)로 생각된다.

화장이 과도한 인공적인 장식이라고 질시했던 그리스인들에게 동양에서 전해 온 짙은 화장술이 아테네를 매료시켰다. 탄산납인 백연(白鉛), 석고, 백묵 등으로 얼굴을 하얗게 하고 식물성이나 광물성인 붉은색 분들은 하얀색과 섞어 불연지로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것들은 채도를 떨어뜨린 후 볼 위에 발랐고 단색으로 쓰였던 붉은 색은 이집트의 무화과나 으깬 나무딸기를 재료로 주로 궁정 인들이나 최상류층 여인들이 사용하였으며 화장품 조제 비법은 약제사를 통해 모녀간에 전통적으로 전수되었다.

그리스 여인들은 붉은 산화아연을 반죽한 루즈로 뺨이랑 입술을 물들이고 흰 납의 가루를 백색 안료로서 이용했다. 그 후 립스틱용 색소로서 주로 서구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코치닐(cochineal, 그림44)이라는 식물에서 채집된 카민(Carmine, 그림45)이, 일본에서는 홍화에서 채집된 카사민이 널리 이용되어 왔다. 유지나 왁스로 구성된 “근대적 스틱상 립스틱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해서 나온 것”³⁰⁾이다. 색상이 변하지 않는 카민이 중심적 색소였지만 합성색소

29) 오진곤 편, 전게서, p.22.

30) 光井武夫 編, “신화장품학”, 권경옥 외 5인 역, 서울 : 도서출판 동화기술, 1997, p.469.

테트라브롬플루오르세인(적색 223호)이 이때부터 사용되어 지워지지 않는 립스
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림35>
말라카이트
(malachite)



<그림36>
갈리너
(galena)



<그림37>
안티모니
(antimony)



<그림38>
코울(Ko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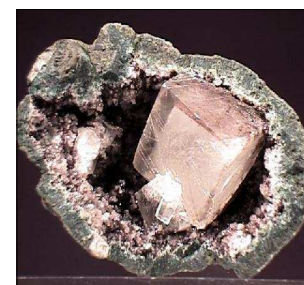
<그림39>
방연광(PbS)



<그림40>
이산화망간(MnO_2)



<그림41>
석고($\text{CaSO}_4 \cdot 2\text{H}_2\text{O}$)



<그림42>
석회석(CaCO_3)



<그림43>
연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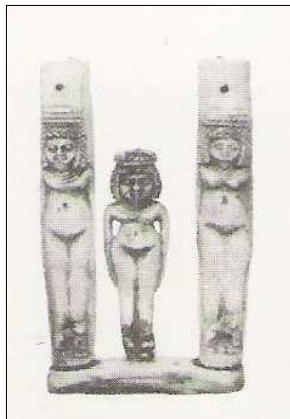
<그림44>
코치닐(Cochin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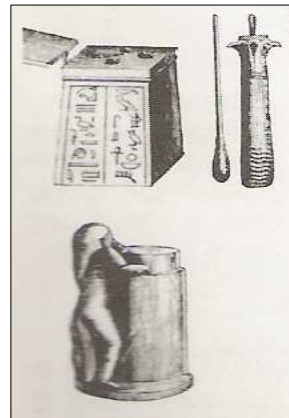
<그림45>
카민(Carm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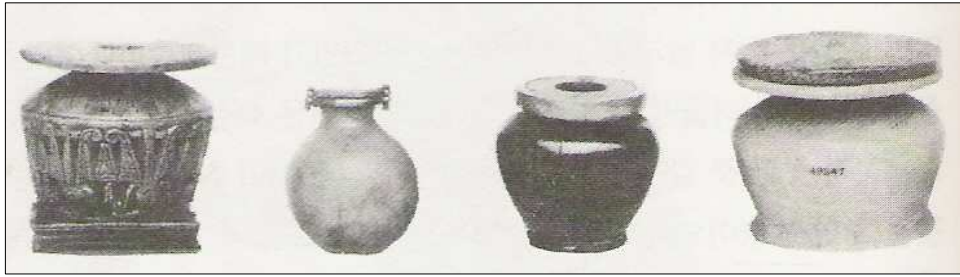
<그림46>
고대이집트의
화장품도구상자



<그림47>
쿨
쌍 튜브



<그림48> 쿨아이새
도우 튜브



<그림49>

고대이집트의 크림

눈화장병

2) 중세 색조 화장품의 특징

395년, 테오도시우스(Theodosius)1세의 몰락 후 로마제국은 로마를 수도로 하는 서로마 제국과 동쪽의 동로마제국 또는 비잔틴 제국으로 분열되었다. 비잔틴 제국은 1453년 터키인에 의하여 멸망되기까지 1000년 이상 존속되었다. 그리스도교가 성행하면서 인간의 몸은 신이 주신 것이므로 가능한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머리와 얼굴을 덮어 가리게 되었다. 소녀는 가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기혼 여성은 머리와 얼굴을 천으로 덮었다. 대신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런 사회적 영향으로 밀가루, 라드(Lard, 그림50), 수은(그림51), 장뇌(樟腦, 그림52)를 반죽하여 화장품을 만들어 발랐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피부에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뽀루지나 부스럼이 많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가능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조치가 정부로부터 내려졌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화장품은 상류계급 사이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되었다. 백분(Face Powder, 그림53)은 예전에는 쌀가루 등이 이용되었으나 7세기에는 연백(염기성 탄산염, 그림54)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이용되었고 그 후 경분(염화 제1수은)이 백분으로 이용되었다.³¹⁾

로마네스크 시대는 비잔틴 시대의 영향으로 교회의 엄한 계율이 존재했다.

31) 光井武夫 編. “신화장품학”. 권경옥 외 5인 역. 서울: 도서출판 신화기술. 1997, p.451

하지만 여성들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가늘게 켄(Curl)진 머리가 베일 속으로 살짝 엿보이게 했다. 머리는 자연 그대로를 좋아했으나, 진보적인 여성은 머리를 브론드와 검은 색으로 염색하였다. 화장품으로는 로션이 사용되었고 크림도 일찍부터 보급되었다. 십자군 전쟁 이후 동양으로부터 안티몬과 향유 등 진기한 화장재료들과 회교도의 화장 풍습이 전해져서 여자들 사이에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스의 자연철학이 아랍과학을 거쳐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의학이 발전되어, 13세기와 14세기에는 알드브랑당 드 시엔(1256)의 육체의 식이요법론과 랑프랑 드 말랑(1296)의 『대 외과학』 등 중요한 의학 개론서들이 편찬되었으며, 화장품(Fard)이라는 명사가 생겨난 것은 12세기로서 ‘채색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프랑스어 ‘파르주안(Farjwan)’ 또는 ‘파르위동(Farawidon)’에서 파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딕 시대에는 프랑스에서 생기가 도는 장밋빛이 인기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니스, 수은, 장뇌수, 밀가루, 라드와 여러 가지 염료를 사용하였다.



<그림50>
라드(Lard)



<그림51>
수은(Hg, mercury)



<그림52>
장뇌(camphor)



<그림53>
백분(Face Powder)



<그림54>
연백



<그림55>
중세시대 화장품 도구들

3) 근대 색조 화장품의 특징

르네상스란(Renaissance)란 본래 ‘재생’이라는 의미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14세기경부터 16세기에 걸쳐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예가 부활한 것을 의미한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르네상스는 유럽에서 전성기를 맞았는데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강한 자아의식과 개성의 자각을 위하여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을 찬양하고 인간자체를 고유의 가치와 원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탈리아의 교수였던 피에트로 데 빠드웨는 몸을 씻는 방법과 분을 바르는 방법 등의 화장법을 여성의 화장이란 책에서 다루었

으며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초에 걸쳐 생존했던 해부학 및 의학의 권위자인 헨리 드 몬드 빌과 이탈리아의 조반리 가문은 의학에 관한 저서 중 화장에 대해 경멸하는 입장으로 화장품과 미용술에 대해서 썼는데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계기로 인해 화장품을 비롯한 화장전반에 걸쳐 이론적인 확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새로운 화장품의 제조와 화장술이 성행했다. 과거 상류층이 사용했던 향료사용이 이 시기에 와서는 체취제거를 위한 향수로서 보급되었는데 이는 중세이후 페스트의 유행으로 공중목욕탕이 금지되고 세탁과 입욕의 습관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향이 강한 것을 장갑에 뿌리는 것이 유행하여 프랑스와 영국에 전해지게 되었다.

바로크시대에 이르러서는 중세의 아름다움의 원형이었던 어리고 가냘픈 아가씨는 사라지고 대신 포동포동하고 성숙한 여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때에도 새로운 제조 방법이 생겨났는데 이태리 메디치 카세리나(Catherina, 그림 56)는 프랑스의 헨리2세와 결혼하여 새벽에 왕실 정원에 핀 복숭아 꽃잎과 이슬을 따서 밝은 보름달 아래 아몬드 오일과 섞어 만든 로션을 얼굴에 바르면 혈색이 좋아진다는 가문의 비방을 프랑스 왕실에 전해주었다. 이는 정작 납 가루분과 비상(砒霜)을 섞어 만든 독약으로 그녀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쓰였으므로 그녀는 1663년에 처형당했고 그후 이태리 정부는 화장품에 납 가루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1692년 프랑스에 이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대에 등장한 스페인의 미용크림은 당시로선 귀한 음료수인 카카오(초콜릿의 원료)와 바닐라향을 바른 것으로 루이 왕조의 궁정과 파리 상류계급의 부인들의 손과 어깨를 하얗게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크림은 본래 먹는 우지(牛脂)로 버터를 만드는 원료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우지의 크림과 비슷한 화장품’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비누의 생산지였던 스페인에서 ‘미용 크림’(불·크렘·드·보우페)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에 수출된 것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크

림이 화장품의 이름으로 정착된 것은 1765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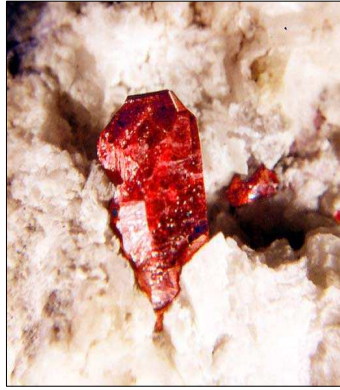
18세기 로코코 시대에는 청순, 간소, 우아하며 기교적인 로코코양식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는 귀족의 부르주아적 감상과 이국적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과학의 진보와 함께 예술미가 풍부했던 이 시기에는 의상뿐만 아니라 화장양식에도 청결 관념보다는 실용성과 예술성에 우위를 두었다. 로코코 시대에 이르러 화장품의 제조는 더욱 활발해졌고 화려하고 무분별한 화장은 극에 달했다.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주근깨는 태양열에 의해 생기며 명반을 잘게 부수어 달걀흰자와 잘 섞어 으갠 후 약한 불로 굳지 않게 잘 저어 거품이 나도록 반죽하여 주근깨 위에 3일간 바르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또 하얀분을 바르고 그 위에 빨간색을 바르는 화장법은 18세기말까지 계속되었다. 그 기간의 유행은 흰 분이 기본이고 빨간색이 주가 되었다. 1770년 영국에서는 영국귀족에 의해 영국 최초의 비누와 화장수 회사가 생겼으며 1774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향수와 화장품 가게가 생겼고, 프랑스 남쪽 지중해 연안의 풍부한 꽃 생산지를 중심으로는 향수제조가 발달했는데, 이 화장품은 여러 직업에 의해 비전문적인 방법으로 제조되어 마술적인 처방과 함께 선전되었다. 1789년에 시작하여 1795년에 끝난 프랑스혁명시기에는 영국의 시민복장이 궁정 중심의 귀족복장을 밀어내고 이른바 복장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성복에는 로코코 풍이 사라지고 영국형 또는 그리스형이라 불리는 깔끔한 옷이 모던한 것으로 여겨졌던 시기다. 이 시기에 나폴레옹의 첫 부인인 조세핀(Josephine)은 미인이며 멋쟁이로도 유명하였는데 그녀는 매일 의복과 화장품에 많은 비용을 들였으며 그녀가 즐겨한 화장은 옛 서인도제도의 화장으로 불을 빨갛게 칠하였다. 이 화장법은 영국에서도 유명했고 또한 흰 분으로 얼굴을 아름답게 했으며 특히 로마시대의 화장이 유행하였다.

1840년대에 영국의 비평가 Alexander Walker 부인은 선흥색을 포함한 루

즈는 진사(cinnabar, 그림57)나 수은이 포함되어 있으며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고 그녀는 경고했으나 연지벌레의 암컷을 말려서 만든 진홍색 염료인 코치닐을 포함한 루즈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당시에 그려진 초상화를 보면 얼굴 전체를 핑크 또는 하얗게 칠하고, 입술은 연한 빨간색을 바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860년에 마담 라셀(Madame Rachel)은 영국 런던의 본드 스트리트에 가게를 열어 화장수와 페이스 파우더를 발매하였다. 야들리(Yardley, 그림59)로 알려져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는 1851년 이 제품의 품평회를 개최했고, 1900년대 초기에는 화장품으로 소개되었다.



<그림56>
메디치 카세리나



<그림57>
진사(cinnabar)



<그림58>
에스티로더의 진
사를 원료로
한 제품(현대)



<그림59>
야들리(Yardley)사의
제품들(1970)



<그림60>
근대화장품 도구상자



<그림61>
근대19세기
향수제품

4) 현대 색조 화장품의 특징

19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프랑스 혁명과 자연주의 사상의 대두로 인위적이고 유해한 화장품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19세기의 산업혁명은 화학분야에서도 급속한 발전을 가져와서 화장품의 성분과 제조술이 개선되고 품질이 개량되어 1866년에는 산화아연(Zinc Oxide, 그림62)을 만들어 냄으로써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백분보다 훨씬 안전한 새로운 분을 공급하게 되었다. 근세에 들어서도 흰 피부를 선호하는 여인들은 햇볕에 그을리지 않도록 얇은 베일을 썼으며 미용팩과 필링효과가 있는 메카의 향유, 카카오(그림63) 기름, 고추냉이(그림64) 기름을 이용했다. 카롱 박사는 “유동성, 광물성 화장품들을 비난하며 소량의 식물성 연지만을 허용했으며 피부에 싱싱함과 윤기를 주는 부드러운 전맥질 화장품을 주름살을 유발하는 수렴성 식초 대신사용”³²⁾하도록 권했다. 왕족이나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크림이나 로션 등의 화장품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되었으며 질도 향상되고 제품도 다양해졌다.

32) 전선정 외 3인, 전게서, p.145.

19세기의 화장품은 과거의 것보다는 위험이 덜하였다. 납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황연 소금(그림65)이 파우더와 루즈의 기초 재료로서 사용되었지만 단점으로서 납에 비하여 해가 없는 소금이지만 가격이 비쌌으며 햇빛에 검게 변하였다. 19세기 말 의학과 유기화학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새로운 화합물에 관한 업적들이 발표되었고 1852년에는 베상(Beechsm)이 1886년에는 미국의 해리엇 험버드(Harriet Hubbard), 겔랑(Guerlain)이 현대적 의미의 화장품을 제조하였다.

1909년 파리에서의 박람회에는 외국의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이 전시되고 러시아에서 온 디아 길레이프 발레단의 공연이 있었다. 동양의 문화를 접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 시대의 서양인들은 화려하고 새로웠던 러시아의 문화와 색채는 하나의 충격이었다. 러시아 발레단의 동양적인 신비로운 색채가 가미된 의상과 무대는 서양인들의 감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오리엔탈 붐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디자이너는 프랑스의 폴 푸와레였는데 그는 동양적인 색과 스타일의 의상들이 연달아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의상디자이너들에 의해 라인의 향수와 화장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양적인 색조의 영향으로 화장의 색조도 강해져서 눈 화장은 동양인처럼 길고 검게 그리고 아이 색도는 황색, 입술화장은 분홍색이나 붉은 색 등 강한 색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여성들보다는 일부 패션 리더들에 의해 행해진 유행이었다. 여성들은 붉은 납이 포함되어 있는 것 대신에 식물 샤프란으로 만든 식물성 루즈를 사게 되었다. 그들은 런던에서 유대인에 의해 만들어진 포르투갈의 루즈 ‘Spanish wool’ 과 중국에서 온 ‘Spanish papers’ 를 사용했으며 눈을 위한 화장품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입술화장은 잘 하지 않았다. 칠하거나 걸치레를 한 상자는 그림물감이 가득 차 있었다. 더 비싼 것이 더 재료가 좋고 더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 지속되었고 진주를 갈아 만든 얼굴 파우더

도 등장하였다. 19세기 중반의 연구자들인 아마추어 약사들은 더 나은 화장품 재료를 찾았다. 제조업자들은 아연 산 또는 화학 스테아린산염을 광물 활석(talc)과 전분 약간과 함께 섞음으로서 활석에 넣은 아연의 비율에 의해 화장은 짙어졌다.

창연(bismuth)보다 값이 덜 나가는 아연은 흰색을 더 발했으며 피부에 잘 부착하였다. 탐탁치 않는 반짝임이 들어 있는 석회분, 철 또는 운모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이탈리아에서 채색된 가장 좋은 활석인 화학 마그네슘(그림66) 규산염(그림67)은 바름과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전분은 알코올을 포함한 향수가 녹말을 탈 때 쉽게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혼합해야 했다.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화장품 산업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전쟁과 함께 화장품 산업도 군수산업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화장품(그림68, 그림69)의 대량생산이 합법화되었다. 입술과 볼에 같이 쓸 수 있는 액체 루즈가 1915년에 만들어졌고, 1916년에는 산화티타늄이 개발되면서 파우더의 품질이 더 좋아졌다.

색조 화장품이 수용되기 시작한 전환점은 바로 할리우드의 여성 영화 스타에 의해 1917년 테다 바라(Theda Bara)는 자신의 눈을 강조하기 위해 루빈스타인(Helena Rubenstein)을 찾아왔고, 테다 바라를 위해 눈에 주목을 끌 마스크라를 만들었고, 그것이 그녀의 얼굴 전반을 지배한 눈꺼풀에 색조를 가미했다. 마스크라는 몇몇의 무대 배우에 의해 프랑스에서만 사용되었지만 그것도 항상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 가발 제조자 맥스 팩터는 제품(그림70, 그림71)을 창조하고 그것을 얼굴 유형에 맞게 적용하는 과학으로 화장을 다루었다. 예를 들어 그는 고객의 얼굴 윤곽을 정확히 측정하는 구경 측정 기계를 발명하였다. 화장품은 그 후 모양이나 크기, 각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결함을 위장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자연스런 피부의 톤을 최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4가지 다른 차양, 즉 금발을 위한 푸른색, 거무스름한 두발을 위한 짙은 분홍 색, 빨간 두발을 위한 민트 그린 색, 거무스름한 두발을 위한 살구 색으로 장식되었다. 그는 “파운데이션 크림의 원조인 그리즈 페인트 이전의 여배우들이 촬영시 입술에 칠했던 립글로스, 아이섀도우, 마스크라, 아이펜슬, 가짜 눈썹과 같이 영화 세계를 위한 특별 상품들을 생산”³³⁾하기 시작했다. 여배우들을 위해 창조된 룩에 대한 수요는 대단해서 맥스 팩터는 ‘여성들이 너무 저속하고 연예 흥행적인 이미지에 질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류사회의 화장’이라는 훌륭한 라벨 하에 그의 화장품을 상업적으로 팔기 시작했을 정도이다.

밝은 심홍색, 황금색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활짝 피어났다. 그 영향은 너무나 커 동양풍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1차 대전 후에는 스틱형의 루즈가 개발되는 등 현대적 개념의 화장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인공적인 색소가 합성되면서 색상이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립스틱뿐만 아니라 아이섀도, 마스크라, 색 파우더 등 다양한 색조 제품들이 선을 보였다. 이렇게 화장품의 종류와 품질이 좋아진 것은 전쟁 동안 여성들이 군수공장에서 일하면서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직업을 가짐으로써 여성들의 생활과 관념이 변한 탓도 있었다. 이때부터 여성 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1918년 이후 영국에서 30세 이상의 집을 소유한 기혼여성이 참정권을 얻음으로써 남녀가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데 첫발을 내딛음으로서 여성 자신의 수입원이 생기자 아름답게 꾸미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은 생계 전선에서 남성과 경쟁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이때부터 미용클리닉과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성행하였는데, 일부 과감한 패션 리더들은 주름제거 등

33) 대니얼 맥닐, 전게서, p.283.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활동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되었다. 1920년대 영화인 ‘셰이크(The Sheik)’ (그림72)에서 스타가 되었던 루돌프 발렌티노에 의해 그 영향은 다시 회복되었다. 숙녀들은 페르시아의 판탈론, 발 끝이 올라간 슬리퍼 그리고 해오라기와 타조의 깃털로 장식한 터반으로 치장하였다. 테다 바라와 폴라 네그리는 마스크라로 눈을 검게 하고, 황금라메를 입고 살금살금 걸었는데, 이들은 그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요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1937년 번지지 않는 립스틱 기타(Guitare)를 출시하였으며 1938년 맥스 팩터는 근본적으로 영상 화장술을 변화시키면서 헐리우드 스타들을 전설적이면서 동시에 자연적 인물로 만들었다. 맥스 팩터는 크림분을 개발하여 가벼운 사용감을 표현했고 눈을 강조하는 크레용의 개발로 거무스름한 침전물의 앙금에 눈을 더 이상 적시지 않게 되었다. 그때부터 줄곧 그는 같은 취지로 말했는데 바로 조화와 자연미였다. 그의 색조화의 이론 우리가 뎡포스코프(teintoscope)라 부르는 이론은 누구도 이전까지 고려해 본 적이 없는 단순한 논리로서 화장이란 피부, 눈과 모발의 색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논리이다. 그는 백금발의 헤어와 어울릴 수 있는 파우더의 색조를 개발하여 진 할로우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렸다.

1930년대를 통해, 화장품을 자기표현과 권위 있는 것의 모방 테크닉으로서 여성의 미적 일상생활을 위한 한 부분으로 수용되었다. 소비자들은 아름다움을 위한 요령과 화장을 위한 조언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졌다. 1938년 맥스 팩터의 수용성 팬케이크 개발은 예컨대 스키피아렐리(Schiap arelli, 그림 73, 그림74)의 지나친 핑크 색조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처럼 화장과 색조화장 수용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제품들은 헐리우드의 매력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당신의 입술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만큼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판촉 되었다. 코손(Corson, 그림75, 그림76)은 색조화장과 연관되어 있던 도덕성 때문에 이것이 에티켓에서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제안했다. 비록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화장이 권고되지 않았지만 점차 화장은 대중 속에서도 너그럽게 여겨졌다. 1940년경부터 카민 등의 천연색소에 대신해서 합성색소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립스틱의 색소가 여성의 머리형, 의복과 밀착된 형태로 유행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진주광택을 갖는 분말도 사용되어 색조, 질감이 풍부한 외에 기제에서도 물, 보습제를 함유한 유화 타입 등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다.

화장 산업은 붐을 이루었다. 맥스 팩터의 화장품은 특정한 종류의 여성성에서의 어필을 투사하기 위해 영화 스타를 이용하여 판촉 함으로서 처음으로 대중 마케팅에 뛰어들었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룩을 모방하려 했다.³⁴⁾ 알코올이나 석유 같은 성분이 군수 용품을 만드는 데로 전환되어 쓰여지자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화장품은 부족하였다. 1939년에 시작된 세계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날 때까지 세계의 문화는 거의 정지 상태였고, 인류는 전쟁의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나 전후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서구는 UN을 결속해 세계대전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사회의 도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 체제에 놓이게 되어 두 초강대국을 사이에 둔 팽팽한 이념대립이 시작되었다. 사회분위기는 사람들의 사교체제에도 변화를 가져와 전반기의 권위주의적 사고가 대중 중심의 자유로운 사고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1940년대 초는 1939년에 발발한 세계2차 대전을 겪으면서 남성들 대신 노동에 투입되었던 여성들은 강한 모습이 이상적인 여성형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전쟁 기간이었지만 내핍생활 중에서도 여성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34) 光井武夫 編. “신화장품학”. 권경옥 외 5인 역. 서울: 도서출판 신화기술. 1997

꾸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는 전쟁물자의 공급에 의해 소비 중심의 화학원료 생산이 줄어들면서 화장품 생산이 제한되었다. 부츠왁스로서 사용되던 공업용 왁스를 마스크라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신발염료 또한 눈썹화장을 대신한 색조로 사용하였다. 심지어는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스타킹 생산이 끊기자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스타킹리스(stockingless) 크림과 아이라이너 펜슬로 맨살에다 정교하게 바디페인팅 함으로써 스타킹을 대신”³⁵⁾하는 등 미에 대한 욕구와 열정을 나타내는 일면이 되기도 했다.

고대 이전 원시시대 주변 환경의 노출에 대한 위장기능과 보호기능으로서의 화장품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서 신무기로 무장된 전쟁 중의 군인을 통해 새로운 화장품 형태로서 사회적 역할이 구축되기도 한다. 그들은 심한 태양광선의 노출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거나 전시 환경으로부터 은폐 또는 정체의 혼란을 제공하는 기능으로써 시도되는 등 화장품은 하나의 신무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화장품이 비싸고 귀해지자 포도주와 꽃잎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미국은 유럽보다는 전쟁에서 비껴서 있었기에 영화산업을 비롯한 소비산업이 호황을 누렸다. 그리하여 미국의 최대 상업도시인 뉴욕은 새로운 패션의 중심지로 떠올랐으며 할리우드에서는 컬러 영화가 제작되면서 기능과 색조가 다양한 화장품들이 제조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더욱 정교하게 눈썹을 그릴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후 피부를 완벽하게 커버 해주며 방수효과가 있는 팬케익(pan-cake)이 나와서 여성들의 화장은 더 두꺼워지게 되었으며 눈이 움푹 들어간 보이도록 아이섀도우를 펴 바르고, 어두운 색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음영을 주는 등 얼굴을 더욱 입체적으로 다듬었다. 화장품 가게는 매력 있게 포장되

35) 이명희, “포스트모던적 현대 메이크업”,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37.

고 바르기 쉬우며, 핸드백에 들어가기 충분하도록 작게 만들어진 제품을 팔았다. 헬레나 루빈스타인의 ‘Mascaramatic’은 전의 축축한 브러쉬를 사용하여 발라야 했던 케익 타입의 마스카라를 대체시켰다. 열광적으로 용인된 새로운 유형의 마스카라는 즉각적이고 영원한 인기를 얻게 되었다. 가짜 눈썹은 눈썹을 일그러지게 하고 망가트렸던 기계적인 눈썹 구부리는 장치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전의 세대처럼 사람들은 인위적인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다시 인위적인 모습으로 격심하게 유행이 변하였다. 건강과 환경적인 이슈에 여성들이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인공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기 시작하였다. 해로운 화장품 사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제재가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1950년대는 여성 해방의 진보시기가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의 시기였다.

1941년 루빈스타인은 629개의 화장품 품목을 제공했고 1940년과 1946년 사이에는 전시(戰時)의 소비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화장품 판매가 65%까지 상승했다. 생산자들은 새로운 화장품 개념에 대한 요구에 응답해야만 했다. 이 새로운 시장을 기회로 하여 가장 성공한 회사 중 하나는 레브론(Revlon)이었다. 1950년 디아더민(Diadermine, 그림77)이라는 최초의 주름 방지용 크림이 나왔고 1955년 크리스찬 디오르의 립스틱, 침대들을 위한 깨끗한 피부와 풍성한 아이래쉬(eye lashes), 가짜 주근깨(false freckle), 장밋빛 볼 등 젊음이 돋보이는 주버나일 룩(juvenile look) 틴에이지 스타일을 만들어 냈으며 화장 도구와 화장품을 넣은 예쁜 장식의 페인트 박스(paint box)는 침대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1950년대에는 피부표현, 눈화장, 입술화장 등 각 부위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고 깨끗한 화장이었다. “어느 특정 부위의 강조가 아닌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표현”³⁶⁾됨으로서 가루분의 까다로운 사용법은 파운데이션이나 분말형 크림,

36) Beauty&Health 연구회, “美의 백년사(100 Ans De BEAUTY)”, 광형심 외 6인 역, 서울 : 현문사, p.76.

맥스 팩터의 팬케이크(pancake)에 자기 자리를 넘겨주어야만 했다. 맥스 팩터 상표의 신호등과도 같은 이 제품은 1937년 이래 화장품 업계에서 입지를 굳힌 성공을 가져다주었다.

레브론의 광고는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끌어낸 1952년의 불과 얼음(Fire-and-Ice) 광고와 같은 위엄, 계측, 매력을 결합시킨 캠페인으로 정열적인 빨간색의 립스틱과 손톱 광택제로 그것을 초월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화장품 역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화장품은 자기, 젠더, 성적 매력, 역할, 권위 있는 것의 모방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이 결합된 바디 테크닉으로서 정교해졌다. 개인주의의 매력을 결합함으로써 화장품은 현대 서구여성의 이상과 동일시되었고 화장품 광고의 본질은 변했다. 회사들은 제품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변용(變容) 속성 위에 감각적이고 성적인 어필을 겹쳐 놓았다. 제품은 새로워졌으며 대중문화의 지배적인 조류 및 당대의 우상과 이상에 대한 어필을 겨냥하여 더 많은 신제품들이 도입되었다. 1960년대에 제품과 그 적용 방법은 극적으로 변했다. 대중문화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세련되고 우아한 룩에 대한 욕망을 기피하였다. 젊음, 에너지 그리고 불손함이 유행의 새로운 주제가 되었다. 새로운 룩을 창출하는 새로운 종류의 화장이 발달되어 시장이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 메리 퀸트는 당시 구할 수 있던 제품에 대한 실망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화장품 라인을 도입했다. 당시의 제품들은 그녀의 의상 룩에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비쌌고 다소 속물처럼 보이는 전문 직원들이 팔고 있었다. 퀸트의 화장품(그림78)들은 싼고 부띠끄에서 의복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하이 스트리트 패션을 완성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고 특히 새로운 방식으로 눈을 강조하여 새로운 얼굴 룩을 창조하였다.

퀸트의 화장품을 젠더의 관계를 변화시키면서 젊음의 속성들을 구축했고

권위 있는 것의 모방에 관한 새로운 코드를 확립했다. 현대 화장품의 역사는 제품을 마술적인 부적으로 판촉 하는 동시에 과학적 원리와 비법을 제품의 개발과 제조, 판매에 적용하도록 강조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비 서구사회에서의 신체장식은 문화의 유지와 확인 의식으로 구성되었던 반면 서구사회에서는 화장품이 준 과학적 처방으로 포장되어 나왔다. 현대 화장품의 생산과 판촉은 과학적 연구, 기술절차, 과학적으로 들리는 이름과 상징들 그리고 실용적인 조작법을 채택했다.

따라서, 화장품의 신제품들은 실험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에 의해 개발되었고 또한 미용(beauty) 클리닉에서 흰 가운을 입은 훈련된 상담원들에 의해 고객들에게로 전달되었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유추의 사용은 화장의 마술을 구성함에 있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화장품 기술이 시각적 속성을 덜 강조하고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속성들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화장품의 매출은 줄어들었던 한편 피부 관리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용하여 화장을 피부 아래 깊숙이 침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또한 판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부 관리의 제품의 시장은 화장 순서를 의례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화장을 위한 예비 테크닉으로서의 피부 관리가 정교해진 결과 클렌징과 토닝, 모이스춰라이징의 세 단계로 절차화 되었다. 피부 관리 테크닉은 꼭 해야만 하는 일상의 규율처럼 권장된다.

화장품을 의례화 하여 바르는 것은 색조화장에서도 반복된다. 우선 얼굴 표면을 베이스, 컨실러, 하이라이트와 블러셔로 다듬는다. 다음으로 눈은 새도우, 펜슬,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로 돋보이게 한다. 마지막으로 입술을 립라이너와 립스틱, 립글로스로 강조한다. 상황에 적합한 그리고 사용자가 보여지기 원하는 인상에 맞는 얼굴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선택된 특정한 룩을 성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의 구체적인 설명서는 화장법 개발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메리 쿼트는 “자연스러운, 고전적인, 파티용의, 환상적인 것의 네 가지 범주로 화장을 구분”³⁷⁾한다. 화장의 선택은 여성성의 다른 속성들을 구성한다. 사회적 신체는 여러 가지 외모를 요구하는 각각의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다.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의 사용도 여기에 속하는 행위들이며 현대 미국여성들은 귀를 뚫고 눈썹을 다듬으며 다리의 털도 깎고 성형수술도 한다. 미에 대한 욕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 의식적으로 인식된다. 그것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화장에 할당하는 미적 가치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초기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은 개인적인 동기나 집단의 동기 중에서 가장 평범한 태도의 하나였다.

1960년대를 전후로 해서는 고풍인 립스틱이 나오기 시작했고, 1962년에는 아이섀도우, 화운데이션, 마스크라 등 화장품이 다양하게 제조되었다.

1974년 다양한 색조의 눈 화장은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화장을 하게 되었다. 눈썹에서 눈 아래까지 쉽게 자연스러운 베이지색 또는 눈의 색에 적합한 아이 섀도를 칠하였다. 화장품의 브랜드화가 이루어졌고 특이한 취향별 제품의 색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시작되었다. 금색 또는 진주 빛의 매력적인 아이 섀도, 거의 초록빛에 가까운 립스틱 등처럼 크림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거나 수분 함유율을 원상 복귀 시키지도 못했으며 피부의 자연적인 탈수 현상을 억제할 뿐이었다. 제품의 수분 공급이 표피의 최상부 층에 관련될 뿐이라는 표시를 포장지 위에 명시할 것을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의무화하면서 1970년대에 법률이 제정되었다.

비록 1980년대에는 산업이 성숙하여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1960년

37) Jennifer Craik, “패션의 얼굴”, 정인희 외 3인 역, 서울 : 푸른솔. 2001. p.288.

대 이후 미국의 산업은 서구경제에서의 소수 성장 산업 중 하나였다. 전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화장품 사용이 십대 소녀에게로 확대된 것이었다. 그때까지 화장은 성인 여성 및 성숙한 여성성의 속성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화장품 라인들에서 기술은 일정해지고 안정되었다. 나이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여성적 속성을 재정의함으로서 화장품 기술은 재개발되었다. 십대들은 모험적이었고 그들의 취향은 금방 변했다.

1980년대는 화장품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약품처럼 피부를 관리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화장품은 향수가게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도 제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원하는 효과를 빠르게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형수술이 뒤를 이었다. 시세이도사에서 출시된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마스크라는 속눈썹을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제품을 만들기도 했으며 크리스찬 디올사에서는 리포좀(liposome)개발에 성공하여 바야흐로 고기능성 제품을 만들어 내는 시대가 도래 하게 됨으로서 1980년대 말에는 80년대 전반의 엷매인 듯한 신분 상징적인 권위가 점차 완화되면서 다양함과 개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다원화된 1990년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림62>
산화아연(Zinc Oxide)을



<그림63>
카카오(Cac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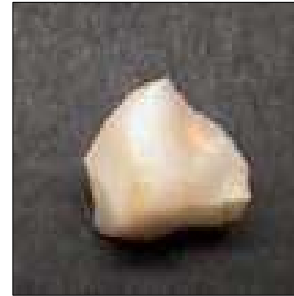
<그림64>
냉이(Wasa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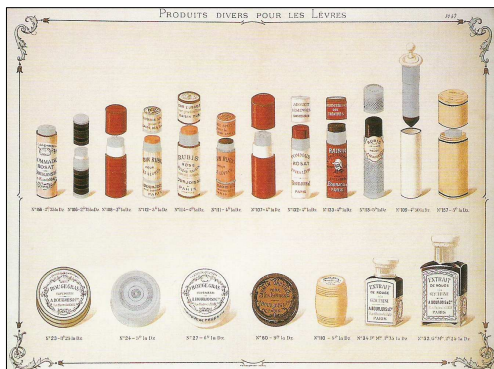
<그림65>
황연 소금(Sulfosalt)



<그림66>
마그네슘(Mg)



<그림67>
규산염



<그림68>
입술용 제품들
(프랑스, 1900)



<그림69>
눈화장용 연필과 손톱용 화장품
(프랑스, 1900)



<그림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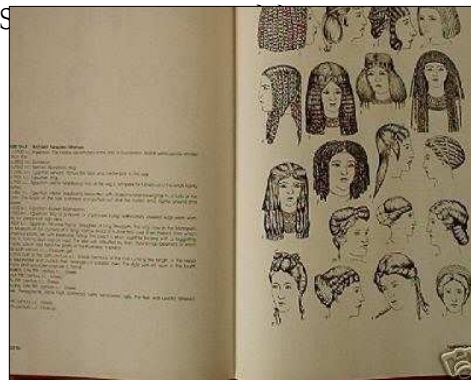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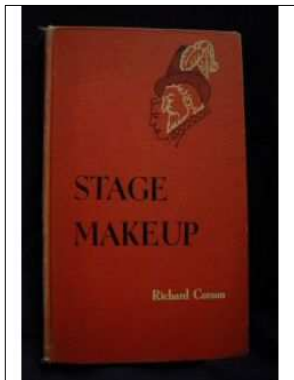
셰이크(The Sheik)

<그림73>

스키아빠렐리

<그림74>

스키아빠렐리의



<그림75>

<그림76>



<그림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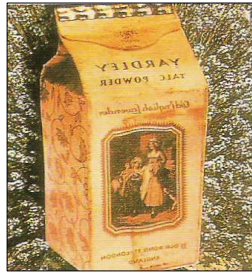
디아더민(Diadermine)사의
주름방지용 제품들



<그림78>



<그림79>
코울(Kohl)을 이용한
현대의아이 펜슬



<그림80>
2차세계대전중의
야들리사의 화장분



<그림81>
일본 시세이도사의
화장품(1931)



<그림83>
현대 화장품2





IV. **화장과** 화장품의 사회적 상관성
현대 화장품4

1. 패턴지를 이용한 화장표현

화장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패턴지를 이용한 이론은 예술적 경험에 대한 창조적인 충동 즉 외모에 관한 것이다. 화장을 한다는 것은 매력적이게 하는 것이나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화장의 경우 장식물이란 얼굴 자체가 된다. 화장이란 순수한 신체적 필요 이상으로 얼굴과 신체 위에 입혀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얼굴 채색은 사회적 신체와 관련된 삶의 행위였다. 신체장식은 개인성과 관습의 자기실현 기술로서 인간성의 속성을 의미하며 화장의 관행은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인 신체 구성물이다. 신체장식 테크닉은 미용술 또는 화장으로 이루어진다.

화장은 형태를 다루는 인체 조형예술로서 형태가 인식될 때야말로 그 존재가치가 살아난다. 얼굴 속에서 형태를 강조하고자 시도하면서 극채색(極彩色)을 사용해서 형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색, 형태, 움직임의 지각하는데 걸리는 상대적 시간에서 움직임보다 형태가 빨리 지각되고 형태보다는 색이 빨리 지각

된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변화하는 두 가지 속성인 대상의 운동 방향과 색깔의 변화를 동시에 본다면 뇌는 우선 색의 변화를 기록하고 나서 운동 방향을 기록한다. 뇌는 움직임 보다 색을 먼저 지각하므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동시에 일어난 것들을 동시에 결합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색이나 형태, 움직임, 얼굴, 표정, 신체 언어 등은 화장술에 있어 극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화장술은 주요한 두 가지 인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보편적인 미를 직접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³⁸⁾ 우리는 대부분 얼굴을 통해 사람들을 인식한다. 따라서 얼굴 표정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그 사람이 유쾌한지 불쾌한지, 아니면 즐거운지 낙담하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해 뇌는 얼굴을 봄으로써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패턴지를 통한 얼굴을 볼 때 우리는 그 크기나 밝기의 정도와 관계없이 보통 얼굴 자체에 주의를 집중한다. 화장의 주요한 요소는 얼굴과 표정이다. 얼굴 표정은 아주 약간만 미묘하게 변화해도 전달되는 인상이나 분위기 또는 뉘앙스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패턴지속에 미묘한 변동이 일어나면 지각적인 효과에 있어서도 역시 미묘한 변화가 유발된다. 얼굴의 작고 미묘한 변화들 특히 눈의 변화를 통해 두뇌가 얼굴을 지각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능력에 커다란 차이가 유발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다. 패턴지를 이용한 표현은 패턴에 대한 얼굴 공간이 패턴 표면의 크기나 형태를 뚜렷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어떻게 계산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얼굴에서 패턴 형태와 공간은 크기가 작을수록 고상하면서도 여성스런 효과를 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촉각과 시각 사이에 일종의 연상을 만든다. 그레브스가 설명한 것처럼 ‘젖은 또는 광택이 있는 얼굴 표면의 피부는 마르고 흐릿한 또는 광택

38) 유평근, 진형준. “이미지”. 서울 : 살림. 2001, p.140

없는 표면보다 빛을 더 잘 반사하며 거친 표면은 매끈한 표면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불균일하게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의 촉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시각에 의해서도 감지된다. 그러므로 시각 경험과 촉감 경험의 연상에 의해서 사물은 젖은 또는 마른, 매끈한 또는 거친 상태로 보여 지거나 느껴진다.’

화장은 색채의 이해와 인지에 공헌했다. 물리학자에게 색채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심리학자들은 시각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즉 심리학자들은 눈과 두뇌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반면 화장 예술가는 디자인이나 분위기의 창출을 위해 색채의 사용에 대해 흥미를 가진다. 색채에 대한 감각은 어떤 사람들에게겐 선천적인 능력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겐 주변의 무수한 다양한 색채를 인지하고 구별할 수 있기까지는 직접적인 관찰의 경험과 훈련이 요구된다.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밝고 진한 색들을 구별하도록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의 이름을 알도록 학습된다. 계속적으로 경험을 더해 감으로써 그들은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맑은 색과 탁한 색의 차이를 알게 된다. 화장은 관찰자의 마음이나 감정에서 쉽게 묘사되진 않지만 강렬한 생각과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진다. 화장에서의 상징성은 종종 무의식적이지만 의식적인 상징은 주의 깊게 조작함으로써 창출코자 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강한 대비의 대담한 색들의 사용을 통해 화장 예술가는 상징이 의도하는 분위기를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얼굴에서 화장을 통한 창조나 구성은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예술표현의 한 형태로서 이 개념은 표현성이란 단어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화장의 표현성이 감정과 심상(心象)을 전달하는 예술표현의 한 형태라 하였듯이 화장은 많은 사람들의 창조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리고 개성을 표현케 하는 이상적인 매체이다. 얼굴의 크기는 신장을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얼굴이 크면 키도 작아 보이고 실제로 키가 그다지 크지 않아도 얼굴이 작으면 외견상으로 커 보인다. 이론적으로 피부색은 신체 어느 부분이나 동일하겠지만 손

과 얼굴이 가장 일치하며 얼굴에서도 피부색조는 머리카락 및 눈동자의 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체디자인이 갖는 색 조합 면에서 대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피부, 두발, 눈동자 등의 세 부분을 색의 기호로 표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사람의 외모는 윤곽, 비례, 질감, 색에서 독특한 조합을 이루고 있다. 인체의 문화적 이상형은 개개인의 신체적 구조와 독특한 특질들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인체 측정 자료들은 남녀가 단지 여러 부분의 둘레와 윤곽의 각진 정도만이 다를 뿐 얼굴과 신체의 상대적 비례가 거의 같음을 보여준다. 인체 사이즈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에서는 다른 신체 부위와 얼굴 크기와의 비율이 실제 측정치들보다 더 중요하다. 개개인의 색 조합을 이루는 색상, 명도, 채도 유형은 고유한 특질들로서 그것들과 결합하는 화장품의 사용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피부와 머리카락의 질감은 시각적인 화장의 디자인 요소들에 의해 감추어 지기도 하고 강조되기도 하는 신체적 자기의 부가적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본다는 것은 시각과 판단이 합쳐진 상태를 말한다. 사람들은 물체의 크기, 색상, 모양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단서를 뇌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공간에 떠 있는 물체를 보았을 때는 정확한 크기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물체가 차원을 잘 알 수 있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상대적 크기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물체의 형태, 크기, 색채 등은 그 물체가 놓인 전체적인 지각장(知覺場)과 관련되어 판단”³⁹⁾된다. 사람의 두뇌는 받아들인 시각적 자극들 사이에서 법칙이나 의미를 확립하려고 한다. 게슈탈트(Gestalt) 심리학자들이 일컫는 것처럼 이러한 통일성의 추구 혹은 지각의 통합작용 역시 ‘착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얼굴을 배경으로 한 화장술에 있어서 필러-라이어 착시 효과를 이용하였다. 동일한 길이의 두 선분은 양쪽 귀의 사선이 바깥쪽으로 향한 선분이 안쪽으로 향한 선분보다 길어 보인다는 원리로 선분의

39) 마릴린 혼, 루이스 구렐, 전계서, p.421.

바깥으로 시선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길어 보이고, 후자는 선분의 안쪽으로 시선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짧아 보인다. 예를 들어 바깥쪽 눈 꼬리 위에 아이섀도를 바르면 눈이 더 벌어져 보인다. 반면에 안쪽 눈두덩이에 아이섀도를 바르면 눈 사이가 좁아 보인다. 눈썹 또한 눈 사이를 넓게 또는 좁아 보이게 할 수 있다.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높고 넓게 그리면 눈 사이가 더 벌어져 보이지만, 두 눈썹이 갈매기 모양이 되도록 가깝게 붙여서 경사지게 그리면 눈 사이가 더 좁아 보인다. 그림자는 뺄셈 효과가 있다. 그림자는 움푹 들어가거나 살이 없어 보이게 만든다. 따라서 얼굴의 어떤 부분들이 깎여 나간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의 양쪽에 그림자를 넣으면 코가 좁아 보이며 코밑에 어두운 색을 넣고 코끝 위로 자연스럽게 색을 연결하면 코가 짧아 보인다.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긴 턱에 그림자를 넣어 짧아 보이게 하고 이중 턱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예전에는 하이라이트로 흰색이나 노란색 분을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림자와 반대되는 색상이면 무엇이든 하이라이트로 쓸 수 있다.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상이 된 부분이 돌출 되어 보이게 한다. 하이라이트를 코끝에 바르면 코가 더 길어 보인다. 하이라이트를 짧은 턱에 바르면 턱이 길어 보인다. 그리고 코의 중심을 따라 하이라이트의 띠를 길게 적용하면 코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여성이 알고 있듯이 눈은 화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아이섀도는 눈이 크게 보이도록 도와주는데 눈두덩에만 바른다. 눈 아래에 바르면 눈 밑으로 살이 처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눈에 생동감을 부여하기 위해 눈썹 바깥쪽 끝 아래에 아이섀도를 살짝 바르기도 한다. 아이라이닝에서는 브러시나 끝이 예리한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하여 눈꺼풀과 속눈썹 사이의 경계선을 따라 가늘게 선을 그려 준다. 위쪽 눈꺼풀에서는 일반적으로 눈 안쪽으로부터 3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시작하고,

눈 길이보다 4분의 1인치(0.6센티미터) 정도 더 길게 그리되 곡선으로 마무리한다. 아래 라인은 바깥 방향으로 3분의 2 지점에서 시작하여 비슷한 방법으로 그린다.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라인이 갑자기 끝나는 것보다는 서서히 가늘어져야 하며 절대 아래위 라인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지나 블러셔는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광대뼈에 발라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든다. 할리우드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리처드 코슨은 “눈의 중앙에서 상상 속의 선분이 떨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지 절대 블러셔를 코 근처까지 칠해서는 안 된다”⁴⁰⁾고 말한다. 얼굴이 좁은 여성들이 뿔러-라이어 착시 효과를 얻으려면 블러셔를 멀리 떨어진 바깥쪽으로 칠해야 한다. 그렇지만 얼굴이 넓은 여성들은 블러셔를 귀에 너무 가깝게 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한 수직에 가깝게 칠하는 것이 좋다. 립스틱은 입술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입술 라인의 위와 아래에 립 컬러를 칠하면 작은 입술이 커 보인다. 입술이 지나치게 두꺼울 경우에는 작업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데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종종 입술 라인의 안쪽으로 립 컬러를 칠하고는 한다. 비슷한 방법으로 립 컬러는 넓은 입술을 좁아 보이게 하거나 좁은 입술을 넓어 보이게 할 수 있다. 화장은 정의상으로는 덧없고 무상한 것이다.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그렇지만 다른 얼굴 변형술은 일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는 각 단위별로 요소들을 통합하며 크기 비교를 근거로 시각적 판단을 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시각적 식별은 그 물체가 놓인 전체적 장과 관련되어 이루어진다. ‘크다’ 또는 ‘작다’, ‘곧다’ 또는 ‘구부러져 있다’, ‘빨간색’ 또는 ‘갈색’ 입을 알기 위해서는 비교기준이 있어야 한다. 착시란 동화 또는 대조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화현상(assimilation effect)은 전체와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사하게 함으로써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거나 감추는 것으로

40) 대니얼 맥닐, 전게서, p.465.

대조현상(contrast effect)은 각 부분을 매우 다른 요소 옆에 둠으로써 그 차이를 크게 한다.⁴¹⁾

형태 혹은 윤곽의 착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형태는 또한 음영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음영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나뭇잎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돌출이나 만입의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의 시각적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성이나 대조 정도에 따라 형태의 시각적 비례는 달라진다. 크기와 면적도 유사한 요소들끼리의 집합은 상이한 요소들을 극단적인 상이함으로 보이게 한다. 형태에서의 차원은 크기 대조뿐만 아니라 ‘메워진’ 혹은 ‘메워지지 않은’ 면적의 착시에 따라 달라진다. 메워진 면적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커 보인다. 얼굴의 대조는 이목구비의 메워진 면적이 메워지지 않은 면적과 대조를 이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착시를 일으킨다. 사실 시각적 재질이란 메워진 면적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는 이목구비의 돌출부분과 함몰부분 또는 그들 면적 간의 구성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점진적인 명암이 형태의 시각적 인상에 미치는 효과는 변화의 정도가 적은 즉 음영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얼굴에서는 윤곽이 아련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돌출부분과 함몰부분 간의 명암 차가 커 대조가 심한 얼굴인 경우에는 형태가 잘 드러나며 강한 인상을 준다.

이렇게 얼굴을 통한 화장의 개념을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효과적인 기법들인 패턴지를 이용해 순간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외양과 존재를 인간의 손을 거친 새로운 이미지로 재창조 해냈다. 얼굴의 표상 위에 미술적인 가치, 즉 다시 말해 영원한 형태를 각인시키는 패턴 스타일은 추상적인 형태 속에서 마치 진실을 증거 하듯 현실 그 자체라고 여겨질 정도로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다. 화장의 표현이 현실로 변한다는 견해로서 뇌 속에 축적된 개념이 패

41) 김학성, “디자인을 위한 색채” 서울: 도서출판 조형사, 1999, p.110

턴지(얼굴)를 통해 현실이 되고 이어서 이데아로 변화한다는 견해는 고대인들로부터 시작된다. 인물에 관한 패턴 개념을 형성시키기에 충분한 정보를 축적해야만 그 개념을 얼굴 속에 외면화시키고 대상의 이데아를 표현할 수 있다.

2. 사회성과 관련된 색조 화장품 사용의 실례

<그림 86>과 같이 황금빛 갈색머리가 바탕색인 경우에는 피부에 광택이 없고 어두워 황금빛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파우더는 한 단계 밝은 색을 사용한다. 이렇게 질게 그을린 피부는 건강해 보이나 자칫 칙칙해 보일 수 있으므로 파운데이션 선택이 중요하다. 입술은 그림과 같이 주홍색을 사용했으나 누드톤이나 밝은 브라운톤도 잘 어울린다. 눈썹은 자연 갈색펜슬이나 새도우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그려준다. 눈 화장은 오렌지나 주황색 새도우를 사용했으며 피부색과 유사한 컬러를 사용해 부드러움을 주었다.

이렇게 질게 그을린 피부와 같은 화장패턴은 1920년대 화장의 유행을 잘 보여준다. 1920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그 다음해부터 패션은 다시 숨쉬게 되었다. 1920년대의 기본적인 실루엣은 직선적인 튜브라(Tubular)였다. 바스트의 팽창을 피하고, 허리도 작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의 이러한 톱 모드를 입은 용감한 여성들을 플래퍼(Flapper, 말팔랑이)라 불렀고, 이러한 젊은 여성들이 1920년대의 유행을 리드하였다. 1926년의 이른바 재즈시대를 대표하는 소녀스타일의 유행이 생겨났고, 댄스가 크게 유행하고 악화(惡貨)가 돌고, 성적 도덕심이 무너지고, 여성해방의 물결이 찾아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누구나 화장을 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어 화장품은 널리 사용되었다.



<그림 86>

진한 화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서 대다수의 관심은 얼굴에 모아졌다. 여성들은 우유와 같이 흰 피부와 핑크색 볼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이상형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였다. 눈썹은 가늘게 밀고, 아이브로우 펜슬로 아치형으로 그렸다. 입술형은 립스틱으로 바꾸었다. 립스틱의 색은 보라색에서 붉은 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색이 사용되었다.⁴²⁾ 이런 유행은 가브리엘 사넬에 의해 유행되었고 피부를 별에 그을리는 것이 하나의 취미로 완전히 정착되기도 했다.

<그림87>과 같이 바탕색이 검정색 머리카락에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의 경우 밝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표현했다. 창백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핑크 빛 파우더를 사용하여 화사하게 표현해준다. 눈 화장은 중명도의 색조 화장

42) 히데오 아오키, "서양화장문화사", 서울: 東西交流, 2004, p.142



<그림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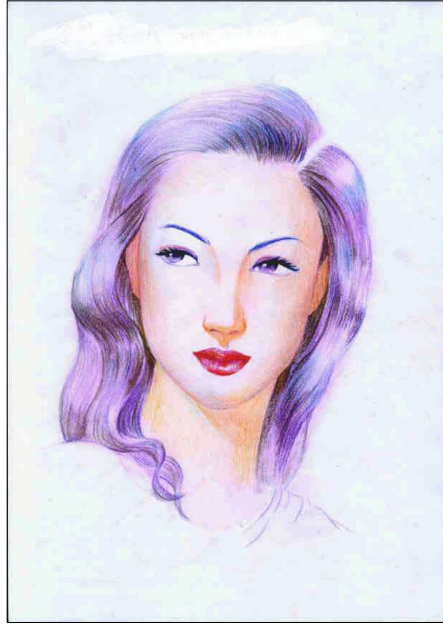
을 하므로 피부 톤과 명도 대비를 주었다. 입술색은 붉은 스칼렛 오렌지 색을 사용하여 차가운 이미지에서 따뜻한 이미지를 주었고, 눈썹은 바탕색인 머리색에 맞춰 중명도 색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백인이라고 피부색이 모두 흰색은 아니다. 백인의 피부색은 흰색, 빨강, 노랑, 파랑의 혼합 색으로 모든 색이 들어 있다. 결정적인 것은 어떤 색이 피부의 톤을 지배하느냐이다. 여기에 피부가 노르스름하게 보이는 피부도 있고, 분홍빛이 도는 피부, 파르스름하게 보이는 피부, 주황빛이 살짝 느껴지는 하얀 피부도 있다. 피부의 톤은 햇빛에 그을렸을 때나 겨울이 되어 창백해졌을 때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백색화장은 중세의 비잔틴 제국(395~1453)에서 잘 볼 수 있다. 비잔틴 제국의 기초는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1세가 보스포루스 해협 부근에 새로운 로마를 건설했을 때 다져졌다. 비잔티움(Byzantium)지역에 세워진 이 새로운 수도는 건설자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다. 이 비잔틴 제국은 역사 속에서 과거로부터 로마제국의 정치적 전통, 그리스 문화, 그리스

도교 등 세요소를 독자적 형태로 결합시켰다. 그리스도교가 성행하면서 인간의 몸은 신이 주신 것이므로 가능한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머리와 얼굴을 덮어 가리게 되었다. 소녀는 가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기혼 여성은 머리와 얼굴을 천으로 덮었다. 대신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밀가루, 라드, 수은, 장뇌(樟腦, 녹나무를 증류하여 얻는 향기로운 결정체, 향료·방충·방취제로 쓰임)를 반죽하여 화장품을 만들어 팔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피부에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뽀루지나 부스럼이 많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가능한 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조치가 정부로부터 내려졌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화장품은 상류계급 사이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되었다.

<그림88>와 같이 바탕색인 머리카락 색이 파란색 기미를 띤 보라색인 사람은 혈색 또한 보편적으로 창백한 혈색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사람은 핑크 빛 파운데이션으로 혈색을 주어 화사하고 생기 있게 표현해준다. 그러므로 화사하면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연약하면서도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피부 색조화장에 유의하여야한다. 눈 화장은 핑크색이나 옅고 은은한 파스텔 톤의 보라색이나, 블루 컬러가 잘 어울린다. 입술 색은 붉은 톤도 어울리나 옅은 핑크 빛 베이지나 산호색들도 대체적으로 어울린다. 또 눈썹은 머리색에 가까운 색으로 그려주면 한결 통일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창백한 안색의 화장도 원했던 시대가 있었다. 12세기 말경의 여성은 머리와 리본을 함께 땅아 내렸으며 얼굴 화장이 전 유럽에 퍼졌다. 영국에서는 창백한 피부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되어 여성은 피를 뽑아내기도 하였다. 당시의 식사 습관은 보통 대식(大食)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식사 후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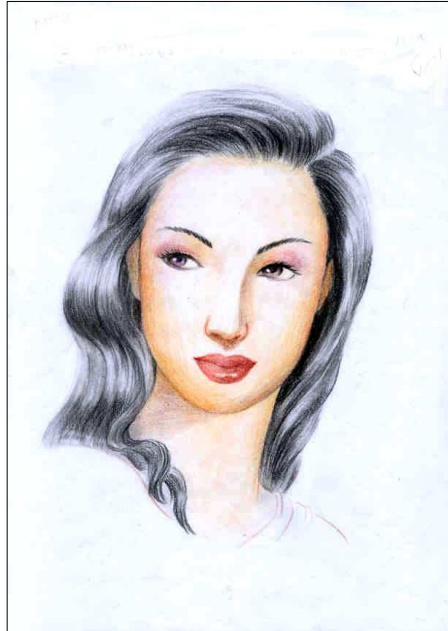
<그림 88>

장을 씻어 내었다. 또한 창백한 색을 강조하기 위해 백색과 회색의 분이 사용되었다. 고대 여인들부터 코코 샤넬이 햇빛에 그을린 얼굴빛을 유행시키기 전까지 여성들의 창백한 얼굴에 대한 동정은 고서를 통해 잘 전해지고 있다. 창백한 얼굴을 갖기 위해서 마치 흑사병을 피하듯 햇빛을 피해 다녔고, 납이나 수은을 주성분으로 해서 만든 유독한 회반죽 같은 분은 얼굴에 바르고 얼굴이 타들어 가는 듯한 따가움을 견뎌내야 했으며, 잠들 때에는 얼굴에 돼지가죽을 붙이고 자기도 했다.⁴³⁾

<그림89>와 같이 바탕색인 머리카락 색이 회색이면서 갈색 피부 톤의 피부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지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지루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그림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바탕색인 머리카락색이 회색과 파랑으로 배색되면 얼굴의 윤곽선이 각지고 단단해 보이며, 은색과 흰색의 눈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도회적이면서 이지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금색이나 빨간색의 눈 화장을 했을 경우 강하고 힘있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입술은

43) Fontanel, Béatrice."치장의 역사".김보현 역. 서울 : 김영사. 2004. p.17

레드톤이나 밝은 레드톤이 잘 어울린다. 눈썹 색은 머리카락 색상과 같거나 유사한 색으로 그려준다.



<그림 89>

<그림89>와 같은 화장 패턴은 20세기 말 서양여성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은한 화장을 선호하면서 유행하게 된다. 화장품의 종류가 점점 늘어만 가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했다. 선명한 색채는 눈꺼풀을 흐리

게 하는 경향이 있어 베이지나 회색을 기조로 한 단색을 사용해 섬세하게 표현하는 화장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이 시대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노인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젊음을 더 오래 유지시키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화방지 및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의 개발이 눈에 띈다. 보습효과 또는 세포 활성화 효과가 뛰어난 성분들을 동식물의 천연 원료로부터 추출해 내거나 새로운 합성성분을 개발하여 피부노화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노

력이 이루어 졌다. 화장도 내추럴한 패턴 또는 노 메이크업 즉 누드화장과 펄이나 메탈릭한 칼라가 가미된 쉬머(Shimmer:어렴풋한빛, 가물거리는 빛, 미광(微光))패턴이 같이 유행하였으며 유분기 있는 제품을 덧발라 표현하는 글로시 스타일이 나타나기도 했다.⁴⁴⁾



<그림 90>

<그림90>과 같이 바탕색인 머리카락 색이 브라운 톤인 경우 피부 화장은 붉은 오렌지색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파우더는 밝은 오렌지색을 바른다. 붉은색과 오렌지색을 혼합하여 붉은 톤의 색조화장을 했을 경우 시각적으로 강한

피부 톤으로 인한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유사한 톤을 사용하거나 다크한 톤을 사용하여 붉은 톤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눈 화장은 옅은 핑크 톤으로 바른다. 입술은 주홍색을 사용하여 강조된 얼굴표현을 중화시키고 눈썹은 붉은 톤과 브라운 색을 혼합하여 그려준다.

44) 히데오 아오키, 전게서, p.192

이런 스타일의 화장은 르네상스(Renaissance)시대에 활성화되었다. 르네상스는 고대문화의 재생, 부흥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예부흥으로 해석된다. 보통 14세기부터 16세기 유럽에 나타난 화려한 문화부흥운동을 가리키고, 그 사회 또는 시대를 일컫는 말이다. 당시의 미인은 ‘장미빛 피부, 브론드의 머리’가 이상적인 것이었다. 분으로 머리를 감거나 머리를 일광에 쬌는 등의 방법이 행해졌다. 또 브론드의 헤어피스를 하거나 머리에 분을 뿌리기도 하였다. 까뜨린느 메디치(Catherine de Medici)는 로렌조 메디치의 딸이며 프랑스의 프랑소아 1세의 차남 오를레앙공(公) 앙리(Henri)와 결혼하였다. 까뜨린느는 유명한 조향사(調香士) 르네를 파리에 초대해 남프랑스 그라스에 최초의 향수공장을 만들었다. 이것은 그리스가 오늘날의 세계적인 향수 산지가 되는 기초를 쌓게 된다. 당시 최신의 화장법도 까뜨린느가 프랑스 궁정의 여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피부에 회화용 재료를 바르는 것이었다. 안료로 얼굴에 칠한 다음 낮에는 미묘한 푸르스름한 흰색, 저녁에는 불을 빨갱게 칠하는 장밋빛 피부화장이 유행하였다.

<그림91>와 같이 바탕색인 머리카락 색이 금발인 경우 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 바탕색이 금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한 화장을 할 경우 너무 대조를 이루거나 시각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강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피부화장 표현 역시 자연스러운 색을 선택하여 표현하는 것이 무난하다. 눈 색조 화장은 파스텔 톤을 선택하여 얇게 발라 줌으로서 한결 신선한 이미지를 준다. 입술 색은 그림에는 붉은 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자연스러운 립글로스나 옅은 핑크빛 색을 사용하여 바른다면 한결 부드러우면서 소녀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눈썹은 옅은 갈색을 사용하여 그려준다. 한편, 머리카락의



<그림 91>

색이 밝고 피부색도 밝은 사람이 화장도 하지 않은 채 강렬한 색의 옷을 입으면 옷에 인물이 가려 초라하게 보이기 쉽다.

이런 연한 스타일의 화장은 1980년대 화장의 기초를 이룬다. 지구촌의 오염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패션과 미용분야에도 중요한 주제와 소재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천연 소재의 자연스런 질감과 색을 위주로 스타일링이 되면서 에콜로지 룩(Ecology Look), 그런지 스타일(Grungy Style), 내추럴 스타일(Natural Style)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화장의 색조도 매우 옅어짐으로 인해 눈썹도 흐리게 그리고 입술화장도 옅게 하는 투명화장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가볍게 하는 화장이 유행함에 따라 여성들은 피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 화장품 생산에 있어서도 피부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전문 제품들이 더욱 세분화되어 개발되었다. 또한 밝은 색의 자연스러운 웨이브의 헤어스타일이나 스트레이트한 뱅(Bang)을 짧게 자르고 숏 커트가 유행하였다.

<그림92>과 같이 바탕색인 머리카락이 빨간 기미를 띤 갈색인 경우 피부색 역시 진한 색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사람은 화장을 하지 않고 강렬한 의상색을 선택하여 입어도 잘 어울린다. 피부표현을 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바탕색이 진하므로 피부표현 역시 진하게 표현하여 자신이 시간과 장소와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연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눈 화장은 중채도의 색상이나 저채도의 색상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입술은 그림에는 진한 핑크 빛을 사용하였으나 여기에 브라운 색이나 붉은 흑장미 색, 진한 붉은 보라색 등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눈썹은 진한 브라운 톤으로 머리 색상에 맞춰 그려준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나 비즈니스 걸, 사업가 같은 리더십이 있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에게 많이 사용된 화장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92>

진한 화장은 근대 귀족사회에서부터 1980년대 디스코가 최고의 전성기였던 젊은이들에게까지 여러 사회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18세기 로코코시대에 세탁에서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화장에서 만큼은 정성을 들였다. 얼굴은 하얗게, 눈썹은 검게, 혈관은 아름다운 청색으로 치장하는 식이었다. 이 당시 빨간색을 사용하여 화장을 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품위 있는 여인은 빨간색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화장법에 자신이 있는 귀부인들은 이런 위험을 무릎쓰고 빨간색을 사용하였다. 인공적인 세련미를 가진 사람만이 존중된 이 시대에는 자연을 그대로 모방한 건강한 빨간색은 경멸당하고, 인공의 미를 만드는 빨간색만이 인정되었다. 또한 진한 화장은 80년대 디스코가 최고의 전성기로 금으로 장식한 젊은이들이 격렬하게 춤을 즐겼고, 젊은 여성들은 아주 빨간 립스틱과 아이섀도는 푸른색으로 바르고 불그스름한 색의 볼터치로 광대뼈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으로 아주 색다르게 자신을 표현하였다.

화장표현에 있어서 색조화장품 선택의 실례와 그에 따른 역사적 화장문화를 살펴보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사회는 그때그때 적당한 준칙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지금 현대처럼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는 현대사회의 화장과 그에 따른 화장품 역시 인터넷이나 통신으로 인한 정보 공유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각 나라의 문화와 경제가 더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화장의 유행양상도 더욱 다원화, 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 본 화장과 화장품의 변천과 그 사회적 특성에 대해 시대별로 살펴보고 화장과 화장품의 사회적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화장은 신체, 특히 얼굴을 중심으로 색과 향을 부여하고 잘 조화시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 가치 추구행위로서 의복과 같이 항상 인간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해온 화장은 피부표면에 직접 행해진다는 제한으로 다른 치장 요소에 비해 그 표현 방법 및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20세기 전까지는 화장품의 원료구입, 제조방법 등의 한계로 크게 보편화되지 못하였고 역사적으로 화장이 극도로 지나치게 사용되었던 시기에는 남녀의 구분 없이 귀족 혹은 특수한 신분계층의 전유물로서 사치와 신분의 차가 반영된 문화였다. 20세기에 들어와 현대 산업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대중이 출현하면서 그들 각자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 미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화의 진행으로 화장품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화장은 일반에게까지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이집트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화장도구를 사용하였다. 더운 날씨에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테레빈과 향으로 만들어진 연고를 발랐다. 그들은 피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로션을 사용했으며, 사마귀나 여드름을 제거하기 위한 로션도 사용하였다. 주름을 없애기 위하여 그들은 설화석고, 소금 꿀로 만들어진 것을 칠하였다. 이집트인들의 화장도구 물품들은 숨씨 있게 만들어졌다. 고고학자들은 고대에 쓰던 화장품의 조각이 남겨진 나무나 상아로 만들어진 조그만 상자를 발견했다. 설화 석고나, 유리로 만들어진 병이나 향아리 등은 오일이나 연고를 담아두는데 쓰여졌다. 화장품은 사후세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다. BC3000년대 이집트인의 무덤에서 초록색 아이쉐도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방연광이나 공작성의 작은 가방이 발견된다.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보물중의 하

나는 화장품 향아리이다. 그 향아리 안에는 동물 기름으로 만든 크림이 남아있었고, 이것은 죽은 후의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였다.

515세기까지 1000년 동안은 보통 개인 장식품에 대한 관심이 부재했다. 로마의 멸망은 위생 시설, 목욕, 향수 같은 로마인의 습관에 대한 관심을 사라지게 하였다. 당대 종교적 이유로 인해 일어난 운동인 십자군전쟁은 서유럽에 화장품을 소개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1095년 첫 번째 십자군 이후, 예루살렘은 무신론자와 십자군의 용사들이 가져온 아라비아산 향수와 화장품으로 넘쳤다. 유럽에서 머리 염색은 갑작스런 유행이 되었고, 귀족의 여인들은 마녀를 나타내는 붉은 색을 제외한 노란 색 검은 색 등으로 그들의 머리를 물들였다. 중세 시대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인과 직공의 새로운 계급들은 그들의 아내들에게 허영심을 채워줄 시간을 주게 되었다. 상업의 발전은 모든 계층사이에 전달을 증가시켜서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은 부유함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다. 비록 교회는 화장품의 사용을 비난했지만, 몇몇의 중세 여성들은 개인장식품을 통하여 그들을 표현하기 위해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여성의 외모는 로맨틱한 기사도의 상징을 유지하며 창백하고 금발머리의 귀여움으로 기준화 되었다. 선호되던 얼굴색은 백합처럼 창백한 흰색이었고 입술이나 볼은 장미처럼 붉은 색조였다. 르네상스 시대동안 넓어진 사고력은 중세시대의 사회적 억제로부터 유럽인들을 자유롭게 하였다. 화가와 교수들은 묘사의 자유와 인간의 몸을 논하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새롭게 해방된 여성과 남성들은 개인적 장식구의 새로운 수단을 실험하였다. 대체로, 화장품은 비난 없이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졌지만 때때로 종교적 광신자들은 이러한 것을 근절하려 하였다. 15세기 초기에 화장품은 두루 인기가 있었다. 이탈리아 여성들은 자유스럽게 눈 주위에 색조화장을 하고 심지어는 치아에도 하였다.

17세기 화장품에 대한 환상이 17세기의 문학에 비판적이기도 하고 반대로

찬사로도 나타났다. 화장품의 사용은 보통 17세기에 와서 더욱 자유스러워졌고, 옷, 화장품의 패션은 파리부터 나머지 유럽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왕가에서 쓰여 지던 얼굴 크림은 보통 사람들까지 쓰게 되었다. 베네치아의 화장용 분은 최고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데서 만들어지는 분보다 더 많은 납을 함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7세기의 처음 반세기 동안 여성들은 그들이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머지 반세기 동안 얼굴 화장 기술은 그들의 민감함을 없애주었다. 영화관이 인기를 얻으면서 모든 사회계층의 여성들은 여배우로부터 힌트를 얻고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화장법을 따라하였다. 이런 사회적 상황으로 17세기가 끝나가면서 화장품 시장은 번영하였다.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죽은 후, 서부 세계는 구유물의 덮개를 벗어버렸다. 미용 용품을 파는 기업가들은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번영하였다. 첫 번째 미용전문 가게는 파리, 런던, 뉴욕에서 열었는데 머리 트리트먼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화려한 화장은 침울함이 가득한 분위기를 경감하게 하는데 일조하였다. 미용전문점은 보편적으로 성행했고, 주요 도시의 큰 백화점에서는 살롱을 열었고, 작은 도시에서는 중개업자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미용 전문점을 차리거나 자신의 거실을 동네 살롱으로 개조 하였다. 20세기 중반 상업적인 경쟁이 격화되면서 상품을 포장함으로서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기 시작하였다. 1918년쯤 여성은 남성이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던 짧은 머리를 하기 시작하고, 전쟁 시 남성의 일을 대신하였다. 반대로 여성 해방은 여성에게 화장품 사용을 더 하도록 만들었다.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화장을 했다. 1920년대의 영화스타들은 아름다움의 이상향 이었다. 여성들은 마스크라로 그들의 속눈썹을 검게 하였고 색깔 있는 쉐도우로 눈두덩이에 색조를 주었다. 한편, 기업가들은 스크린에서 보여 지는 스타들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자본화 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화장법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전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대중적인 이상형은 10년이나 통치자의 기간에 따라 변해왔다. 하지만 1940년대 말부터는 계절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거무스름한 피부색은 전통적으로 들판에서 일하는 영세 농민의 피부색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1950년대 패키지 화장품이 출시되자 그을린 피부색은 이제 호화로운 해변 휴양소에서 태양을 즐긴 후를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20세기의 사람들은 인위적인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다시 인위적인 모습으로 격심하게 유행이 변했다. 건강과 환경적인 이슈에 여성들이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인공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기 시작하였다. 이런 시기에 가장 잘 팔리는 화장품은 실제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따거나 허브나 채소의 요소가 라벨에 포함되어있는 것이었다. 자연스러운 매력을 원하는 여성들은 야외 분위기를 일으키는 향의 향수를 선호하였다. 여성을 유혹하고 물건을 사도록 하는 화장품 산업에 의해 성취된 변화는 끝이 없다. 오늘날 화장품 광고는 여성을 유혹적이고 색다르고 어린아이처럼 묘사한다. 화장품의 도움으로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여성 자신의 모습을 제외한 모든 원하는 모습을 성취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 시대적으로 살펴 본 것과 같이 원료의 활용 가능성에 따른 기술적인 발달과 그에 따른 전형적인 화장 양식의 발전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 화장 기술의 발전은 화장품의 발명과 개선에 좌우된다. 특히 화장 문화는 사람들의 특정한 생활 방식으로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행동과 그 행동의 산물 즉 물질적 사물인 화장품에 의해서 표현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적 사물의 한 범주인 화장품과 화장은 그들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신념과 관습이 내포된 화장 문화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학습행동의 총체로서 인간 집단의 배경을 이루는

모든 전통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장은 ‘유전’ 되며 ‘변형’ 된 그것으로서 ‘공유’ 되며 ‘학습’ 되고 ‘축적’ 됨에 따라 유전 즉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

따라서, 현대의 화장 문화는 무조건적 외래모방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의식에 대한 독특한 이론적 배경 위에서 시대적 풍조가 단일화되는 것도 아닌, 개개인이 가지는 개성 있는 미(美)의 해석 위에서 자연스러운 조화들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화장품 역시도 기능화 되고 과학화된 토털 시스템으로서 작용을 하도록 제공되고 있으며 인체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배경으로 생체공학적인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장과 화장품의 사회성을 기반으로 상호관계를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각 시대별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폭넓은 미의식을 수용하고, 또 화장을 한다는 것과 화장품을 바른다는 것을 얼굴 각 부위별로 보다 학문적으로 해석하였으며 화장과 화장품의 상관성에서는 화장품은 화장을 위한 도구이지만, 이 도구의 선택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개성 및 성향에 대한 정보와 더 심층적으로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보여 질 수 있다. 화장과 화장품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 과정에는 화장품의 개발이 그 시대의 화장 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고대 이집트인들처럼 그 당시 향수 문화가 발달되어 식물기름과 라임, 향수를 섞어 크린싱 크림을 만들었고 향유를 섞어 피부에 발랐으며, 유향과 테레빈유는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였다. 이것은 그 시대의 도구 즉, 화장품의 발달이 화장문화를 변화시킨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시대의 어떤 특정한 도구의 발달로 화장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특정 화장을 하기 위해 화장품을 개발, 연구하기도 하면서 인류의 아름다움에 대한 꾸밈은 발전해 왔다. 인류의 화장 문화에는 우리가 화장의 부속물로만 여겨졌던 화장품이 화장 문화와 공생하며 상호보완관계로 발전해온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단지 화장 문화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화장품과 관련지어 연구, 제시함으로써 미용분야에 통합적이고 통시적인 맥락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서울 : 도서출판 답게. 1997.
- 김용숙 외 2인. 『화장치료 심리학』. 서울 : 신정출판사. 2004.
- 김춘득. 『동서양 미용문화사』. 서울 : 현문사. 2002.
- 김희숙. 『화장문화사』. 서울 : 청구문화사. 2000.
-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 수문사. 1996.
- 류은주. 『모발 미학사』. 대전: 이화. 2003.
- 박우찬. 『서양미술사 속에는 서양미술이 있다』. 서울 : 재원. 1998.
- 송진웅 외 4인. 『과학의 역사적 이해』. 대구 : 대구대학교출판부. 1998.
- 오진곤. 『화학의 역사』. 서울: 전파과학사. 2002.
- 유평근, 진형준. 『이미지』. 서울 : 살림. 2001.
- 이길상, 양연성. 『화학의 역사적 배경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서울 : 학문사. 1994.
- 이상우. 『동양미학론』. 서울 : 시공사. 1999.
- 이현수. 『생활인의 성격심리』. 서울 : 대왕사. 2003.
- 이호중, 박상준, 『신과학사』, 서울 : (주)복스힐. 2002.
- 전선정 외 3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 청구문화사. 2001.
- 정현진 외 5인. 『미용문화사』. 서울 : 광문각. 2004.
- 조용진, 『우리 몸과 미술』, 서울 : 사계절, 2001.
- 조현설. 『문신의 역사』. 서울 : 살림. 2003.
- 하병조. 『화장품학』. 서울 : 수문사. 1999.
- 외 4인. 『화장품화학』. 서울 : 수문사. 2002.
- Aronson, Elliot. 『사회심리학(사회적 동물)』. 구자숙 외 8인. 서울 : 탐구당.

2002.

Avril, Nicole. 『얼굴의 역사』. 강주현 역. 서울 : 작가정신. 2001.

Craik, Jennifer. 『패션의 얼굴』. 정인희 외 3인 역. 서울 : 푸른솔. 2001.

Fontanel, Béatrice. 『치장의 역사』. 김보현 역. 서울 : 김영사. 2004.

Mcneill Daniel. 『THE FACE(얼굴)』. 언정희 역. 서울 : 사이언스북스. 2004.

Melchior-Bonnet, Sabine. 『거울의 역사』. 윤진 역. 서울 : 에코리브르. 2002.

Romm, Sharon. 『미의 변천사(The Changing Face of Beauty)』. 김조용 외
3인. 서울 : 군자출판사. 2002.

光井武夫 編. 『신화장품학』. 권경옥 외 5인 역. 서울: 도서출판 동화기술.
1997.

리켓, 존. 『얼굴 문화, 그 예술적 위장』. 이영식 역. 서울 : 보고 싶은 책.
1974.

롭, 샤론. 『미의 변천사』. 김조용 외 역. 서울 : 군자출판사. 2000.

제키, 세미르. 『너로 보는 그림, 너로 그리는 미술』. 박창범 역. 서울 : 시공
사. 2003.

트리포노프, 브라소프. 『재미있는 화학』. 편집부 역. 서울 : 전파과학사.
1996.

파케, 도미니케. 『화장술의 역사 거울아, 거울아』. 지현 역. 서울 : 시공사.
1999.

하루야마 유키오. 『화장의 역사』. 임희선 역. 서울 : 사람과 책. 2004.

혼, 마릴린. 구렐, 루이스.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외 2인 역. 서울 : 도
서관 까치. 1995.

히데오 아오키. 『서양화장문화사』. 유태순 외 역. 서울 : 동서교류. 2004.

Beauty&Health 연구회. 『메이크업 & 스타일 100년사』. 곽형심 외 7인 역.

- 서울 : 현문사. 2001.
- Beauty&Health 연구회. 『美의 백년사(100 Ans De BEAUTY)』. 곽형심 외
6인 역. 서울 : 현문사. 2001.
- John, Logget. *The Human Face*. New York : Stein and Day. 1974.
- Karl, Groing. *Decorated Skin*. London : Thames and Hudson, Ltd. 1997.
- Sparshott, Francis. *The Theory of The Arts*.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82.
-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Harper & Row. 1965.
- 富田 知子 著. 『美容師のための美容藝術論』. 東京 : Yamano Internation.
- 栗本 佳典 著. 『美容師のための造形と色彩』. 東京 : Yamano Internation.
- 강세영, 「화장으로 읽는 여성 문화 연구」, 대구 :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강은주, 「눈썹화장이 얼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 :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명희, 「포스트모던적 현대 메이크업」, 대전 :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장사라, 「퍼머넌트 메이크업의 이미지 구성과 활용방안」, 서울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박우찬, 서양미술사속에는 서양미술이 있다, 도서출판 제원, 1998
- 김창규, 대한 화장품 확회지, 제25권, 3호, 1999
- 조명자, 한국 화장 문화 사적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영경,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박보영, 한국·중국·일본여성의 색조화장문화,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3

전완길,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1994

Alpha Latzke, Helen P, Hostetter, The Wide World of Clothing,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86

김명자, 『화장품의 세계』, 정음사

www.cyberbeauty.co.kr

ABSTRACT

A Study of the Aesthetic Correlation between Make-up and Cosmetics

Jeoung Sug Hyoun

Supervised by Prof. Ryu Eun Ju

Major in Make-up Arts

Dept. of beauty-esthetic

Graduate School of Art,

Han Sung University

Make-up has pursued the aesthetic value, which expresses external beauty, by giving color and perfume and by allowing it to be well harmonized, centering especially on a face. The make-up, which has been done along with the start of mankind, was not outstandingly shown its expressive method and a change in the form, compared to other decoration elements, due to the limitations of being directly performed on the surface of a face. Up to before the 20th century, it had not largely universalized due to the limitations such as the purchase of raw materials for cosmetics and a method of manufacture, and during the period when the make-up was used much excessively from the aspect of history, it was the culture, which was reflected the difference between luxury and a social position, as the monopoly of the aristocracy and the specially social-standing class, without the classification of man and woman. Entering the 20th century, as the masses are appearing together with the conversion into the modernly industrial society, it came to be able to evaluate beauty depending on their

own selection and fondness, and as the cosmetic industry develops due to the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the make-up came to be universally performed even to the general public. The invention and the improvement in cosmetics have an influence upon the technical development depending on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raw materials and on the progress of make-up technology depending on the relevance between the developments of a make-up style, which is typical according to that. In particular, as the make-up culture is a specific way of life for people, it is expressed by cosmetics, which are the outcomes of action, which is not directly revealed, and of its action, namely, the material things. The cosmetics and the make-up, which are one category of this material thing possible to be seen with an eye, also present a basis aiming to understand other culture, as well as their own culture. The modernly make-up culture is leading to the natural harmon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dividually aesthetic senses being possessed by each individual, other than being the unconditionally foreign metooism and also other than the historical tendency being unified on the basis of the uniquely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the aesthetic senses. Also, the cosmetics are being offered in order to be worked as the total system, which came to be functioning and scientific, and it is being endeavored in a bid to fully reflect the bionic characteristics against an elaborate study on the human body.

Accordingly, it more scientifically analyzed what doing make-up and what applying cosmetics, by each region, and accepted the broader aesthetic senses by trying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by each period, through historical consideration in terms of the correlation on the basis of social inclination of make-up and cosmetics, and the mankind's decoration toward beauty has been progressed while even changing the make-up culture due to the development of some specific tools during that time in the process of the historical and social development for make-up and cosmetics, or otherwise, developing and researching cosmetics aiming to do the special make-up. This can be seen that, in make-up culture of mankind, the

cosmetics, which we have regarded only as accessories of make-up,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mutually supplementary relation while living in symbiosis with the make-up culture.

Through this attempt, it aims to present in a bid to allow the recognition of make-up and cosmetics to be integrated into a beauty field, and allow it to be understood diachronically, by researching and presenting in relation to cosmetics of its inside, other than only about the recognition of make-up culture.